제14집 | 202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SN 2234-4683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독어독문학 · 불어불문학 · 러시아어문학 · 언어학

대한민국학술원

목 차

머 리 말 ····· 홍재성 ····· 1

독어독문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개 관 ····· 김수용 ····· 7

한국 독어독문학의 정체성 및 패러다임 변화 ····· 김용민 ····· 25

독일 근대문학 ····· 전동열 ····· 61

독일 현대문학 ····· 김연신 ····· 111

독문학 연구의 이론적 확장 ····· 정항균 ····· 159

이론독어학 ····· 구명철 ····· 191

응용독어학 ····· 이민행 ····· 235

독어 교육 ····· 이원경 ····· 255

불어불문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개 관 ····· 유호식, 이성헌 ····· 313

프랑스 소설, 산문 ····· 유호식 ····· 319

프랑스 시 ····· 김진하 ····· 345

프랑스 연극 ····· 이영석 ····· 357

프랑스 비평 ····· 김진하 ····· 377

프랑스 영화 ····· 이영석 ····· 389

불어문화권의 문학과 문화 ····· 홍명희 ····· 399

프랑스어학 ····· 고길수, 이현주, 최윤희, 이성헌 ····· 417

러시아 어문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개 관 ····· 조주관 ····· 495

러시아 소설 ····· 박종소 ····· 499

러시아 시 ····· 이명현 ····· 521

러시아 희곡 ····· 백용식 ····· 563

러시아문학 비평이론 ····· 김수환 ····· 595

러시아어학 ····· 김진규, 남혜현, 정하경 ····· 615

언어학 연구의 동향과 쟁점

개 관 ····· 이정민 ····· 693

음성학과 음성 인식 및 합성 ····· 이호영, 남호성 ····· 695

음운론 ····· 홍성훈 ····· 729

형태론과 통사론: 단층 이론 ····· 채희락 ····· 771

통사론: 다층 이론 ····· 박소영 ····· 811

의미론 ····· 염재일, 이정민 ····· 835

화용론, 텍스트 · 담화 언어학 ····· 박철우 ····· 877

문법화와 언어변화 ····· 이성하 ····· 897

자연언어처리와 코퍼스 언어학 ····· 임서현 ····· 955

언어유형론 ····· 박진호 ····· 973

사전학 ····· 박진호 ·· 1045

구결, 문자와 표기 ····· 장경준 ·· 1071

문법화와 언어변화

이성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Ⅰ. 서론

이 장에서는 2007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행해진, 한국어의 문법화와 언어변화와 관련한 언어학 분야의 연구 동향과 쟁점을 정리하고 기술하여, 이 시기 한국 학문 연구사의 일단을 구성해 본다. 이와 같은 문법화 및 언어변화 연구사 서술 작업은 가능한 한 해당 영역의 주요 세계 학계 연구의 흐름과 추세를 배경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학계의 발전을 위한 향후 연구의 전망도 제시해 본다.

Ⅱ. 주제별 연구 동향

문법화 이론은 언어의 모든 단위와 층위에 적용할 수 있어 주제가 방대하고 따라서 논의를 위한 주제의 분류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이론의 동향과 한국어 문법화를 소개한 연구, 그리고 어휘, 통사, 문장, 담화 등 각 문법 층위별 연구, 기타 다양한 주제의 문법화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1] 전체를 조망하는 글의 성격상 개별 연구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각 논문과 논저를 직접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

1) 본 연구를 위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이루어진 국내외의 학술논문, 단행본, 편집저술 등 800여 항목을 검토하였으나 저자의 연구 상 한계로 누락된 항목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연구물이 지면의 제약 상 모두 언급되지 못하였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이론 및 동향 소개

세계 문법화 연구 동향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9년부터 매 3년마다 개최되던 이른바 문법화 재조명 학회(New Reflections on Grammaticalization)가 2012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제5회 학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이 학회는 1990년대부터 전 세계 언어학계에서 인지언어학, 역사언어학, 역사의미론, 언어유형론 학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던 문법화이론을 다양한 관점과 주제들로 점검하고 그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학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게 된 것이다. 현대 언어학에서 문법화는 견고한 학문 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문법화는 언어의 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언어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 동안 개별 언어 또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다수의 단행본과 핸드북들이 출간되었다. 한국어로 쓰인 문법화 개론서인 이성하(2016)의 개정판이 출간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한국어 문법화 현상을 다룬 저술들과 한국어 문법화 현상을 소개한 논문이 포함된 주목할 만한 저술들이 다수 출간되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어의 존재동사 '있다'의 다양한 문법화 현상을 다룬 M Kim(2011), 6개 언어의 복합부치사를 다룬 S Rhee(2021c), 범언어적 문법화 사전 Kuteva 외(2019), 문법화 핸드북 Narrog·Heine(2011), 유형론과 문법화를 다룬 핸드북 Narrog·Heine(2018), 한국어 핸드북인 Brown·Yeon(2015)과 Cho·Whitman(2022), 트랜스유라시아 언어들의 공통된 문법화를 소개한 Robbeets·Cuyckens(2013), 범언어적으로 조동사의 문법화를 소개한 Aranovich(2007), 명사, 동사 및 구문의 문법화를 다룬 Verhoven 외(2008), 문법화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Lopez-Couso 외(2008), 아시아 제어들의 명사화 표지들의 문법화를 다룬 Yap 외(2011)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어의 문법화 현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북챕터들로는 S Rhee(2011b, 2020c), Sohn(2015) 등이 있으며, 문법화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어 현상들을 예시한 백낙천(2007, 2009), 문법화 현상을 유형별, 기제별로 소개한 최동주(2005, 2007), 문법화 이론의 주요 쟁점들을 소개한 고경재(2017), 그리고 문법화의 개념적 혼란을 염두해 용어들을 해설하고 예시한 S Rhee(2009c, 2011c) 등이 있다.

일찍이 Craig(199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어원에서 여러 가지의 문법형태들이 발달하는 이른바 '다중문법화(polygrammaticalization)' 현상이 관찰되는데, 대상 기간 중 이처럼 다양한 갈래로 문법화하는 현상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특히 어미 '-게'의 다중문법화를 다룬 M Kim(2011), 공나형(2022), '뿐'을 다룬 S Yae(2012)와 S Rhee(2023b), 명사 '갓'을 다룬 윤보영·김인균(2013)과 S Rhee (2022b), 동사 '싶다'를 다룬 M Kim(2010)과 정혜선(2010b), 동사 '되다'를 다룬 김미경(2023), 불구동사 '닥다/다그다'의 발달을 다룬 박용찬(2014a, 2014b)과 전후민(2014), 의존명사 '것'을 다룬 손욱(2023), 명사들이 의존명사를 거쳐 연결어미화하거나 종결어미화하는 현상을 다룬 송대헌(2014), 공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들의 접사화, 조사화, 어미화를 다룬 손평효(2019), 동사 '지다'의 발달을 다룬 함희진(2008), 신은수(2013), 양지현·황병순(2016), 조사화와 어미화를 함께 일으키는 여러 가지 동사들을 다룬 이금희(2020), 그리고 '-ㄴ지'가 연결어미, 종결어미로 발달하며 양태성을 표시하는 현상을 다룬 이금희(2016)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들은 언어형태의 변화가 단선적이지 않고 통합적 환경의 영향으로 복선적으로 다층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일부 연구는 문법화를 촉발하는 동기와 원인, 문법화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는데, 도상성에 기초한 문법화를 다룬 H J Koo(2009b)와 S Rhee(2012b), 유추와 추론에 의한 변화를 다룬 구현정(2010), S Rhee(2012a, 2014b), 박진호(2015), 이지은(2023), 언어의 수사적 사용에 의한 변화를 다룬 A H-O Kim(2011), 목지선(2018), 구현정(2015a), S Rhee(2019a)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주관화, 은유, 형태적 축소 등 문법화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제들을 다룬 S Rhee(2009b, 2009c, 2010b), 최동주(2007), 구현정(2012) 등이 있다.

문법화 이론의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던 현상은 문법화의 방향이 역전되어 문법적인 요소로 변화하던 문법소로부터 문법성이 소실되어 어휘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역문법화(또는 탈문법화, degrammaticalization) 현상이다. 대상기간 동안의 한국어 문법화 연구에서도 역문법화 현상의 분석이 다수 눈에 띄는데, 포괄적으로 문법화와 대응되는 역문법화를 다룬 양영희(2016a,b), 오규환(2016), 이금희(2017) 등이 있고,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경우들은 SNS 등에서 발견되는 파생접두사('개', '초', '신', '급' 등)나 파생접미사('끼', '꾼', '짱', '산', '행' 등)의 독립어휘화 현상으로,

여기에는 최윤지(2008), 강희숙(2012), 노명희(2013), 손평효(2014), 문병열(2015b), 김태우(2016)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의존명사들이 독립성을 획득하여 일반명사처럼 쓰이는 현상을 다룬 이숙의(2013), S Rhee(2023b), 김태우(2016), 개별 항목으로 '거리다'를 다룬 김교연(2022), 수사가 명사로 발전하는 현상을 다룬 구본관(2022) 등이 있다. Hopper·Traugott(2003[1993]), Narrog·Heine(2021) 등 이미 여러 범언어적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역문법화는 문법화에 비해 극소수이며 어휘부에 개별 항목을 추가하는 효과는 있으나 그 효과가 국지적이어서 문법화처럼 언어 체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역문법화 현상의 존재는 문법화 이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단일방향성(unidirectionality)이 강력한 경향성이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불가역적 원리는 아님을 잘 보여 준다.

2. 어휘 층위 문법소의 문법화

언어의 유형론적 특징은 문법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손호민 2008). 교착어라는 유형적 특징에 따라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하였고, 결합적 특성에 따라 다형태소적 항목들이 활발하게 발달한다. 예를 들어 이희자·이종희(2010)의 사전에 등록된 한국어 어미와 조사는 2,056개에 이른다. 명사 형태소에 속하는 조사, 보조사, 후치사 등은 문법화 연구 초기부터 활발한 주목을 받았으며 대상 기간 동안에도 다수의 연구물이 산출되었다. 특히 중세, 근대, 개화기 등의 시대별로 보조사 등 명사 형태소들의 문법화 현상을 관찰한 이동석(2014), 이광호(2015), 남미정(2016), 허재영(2007) 등과 공간표지로부터 발달한 조사들을 다룬 Y Kang(2012)과 유경화(2014), 그리고 문법화를 단계별로 나누어 발달과정을 살핀 양영희(2016), 조사의 특성과 결합 방식에 따른 문법화 양상을 다룬 황병순(2008), 문병열(2015a)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주격조사 '-이'와 '-가'를 다룬 고광모(2013, 2014, 2023), 양재영(2022), 황병순(2007), 박진호(2016), 조영헌(2021) 등이 있고, 특별한 주격조사 형태인 단체주어 '-로', 존칭주어 '-께', 탈격에서 유래한 '-서' 등을 다룬 연구로 A H-O Kim(2014), 김현주(2015), 김인균(2015), 김민국(2019), 고광모(2021), 허인영(2023) 등이 있다. 특히 C Lee(2021)와 이정민(2023)에서는 이 수사와 관련이 있는 특이한 인수칭 '-서'가 '(의도적) 동작성'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명사 형태소는 명사와 명사의 결합과정에서도 생겨나지만 동사를 포함하는 복잡한 통사적 구조에서 응축이나 생략과정을 통해 생겨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류에 속하는 조사, 보조사, 후치사들을 문법화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있다. '같다'가 포함된 구조의 문법화를 다룬 오규환(2008)과 유승국(2014), '있다'가 포함된 구조를 다룬 조영헌(2010)과 남기탁·조재형(2014), '닥다/다그다'가 포함된 구조를 다룬 최윤(2016)과 예선희(2015), '가지다'가 포함된 구조를 다룬 남신혜·김선혜(2019), '다리다'를 포함한 구조를 다룬 장요한(2010) 등의 연구가 있다.

한국어의 문법형태소들은 단순한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심리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의미적으로 정교한 문법범주'('semantically elaborate grammatical category', Kuteva 2009)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스탠스를 포함하는 정교성은 해당 형태가 가지는 기능의 명시적인 정의를 매우 어렵게 하며 따라서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스탠스 표지들 중에는 '열의 없음(tepidity)'를 나타내는 '-나', '흡족하지 않으나 그나마 다행임'을 나타내는 '-이나마', '예상을 벗어남'을 나타내는 '조차', '까지', '마저'와 '따라', '말하나마나 당연함'을 나타내는 '(은)커니와', '얕잡아 볼만한 주제'를 나타내는 '-치고' 등 다양한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다룬 연구로는 M Kim(2015), 김준기(2009), 이승연(2010), 김건희(2009), 손평효(2017), S H Kim(2006), 김성옥(2020), 고석주(2019), 서태길(2009), 천성호(2022), 안주호(2010, 2011a,b), S Rhee(2010a), 윤보영·김인균(2012), 윤보영·김인균(2016), 정연희(2018), 예선희(2012), 김진우·정은진(2022), 박종원·이숙경(2009), 이성우(2021), 이태영(2000) 등 다수가 있다. 이 외에도 한자어에 기초한 복합부치사 '-에 대해', '-에 관해' 등을 다룬 Narrog·S Rhee(2013), Narrog 외(2018), H S Lee(2020), 비교표지를 다룬 S Rhee(2022a), 동일성 표지를 다룬 S Rhee(2007a), 형식적인 인용구조에서 발달한 보조사 '-이란'을 다룬 윤혜영(2016),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요'의 생성과 발달을 다룬 허재영(2008), 언간의 자료를 기초로 접속조사와 부사격조사의 기능을 가진 '-하고'를 분석한 이성우(2015) 등의 연구가 있다.

명사 형태소의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범주는 의존명사이며 오래 전부터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형식명사로도 불리는 의존명사는 그 범주의 정의와 그 범주에 속한 항목이 연구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허웅(1995)에

서는 99개, 이주행(2009)에서는 74개를 제시하고 있으나 고영근(1989)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50여 개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의존성' 또는 '형식성'의 판단이 연구자의 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일반명사로부터 명사범주적 성격을 점점 소실하여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과정 즉 탈범주화(decategorialization, Hopper·Traugott 2003, Kuteva 외 20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범주 경계의 비변별성과 문법 범주적 불안정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존명사가 문법화 연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통상 일반 명사가 의존명사로 발달한 후 다양한 통사구조에 들어가 쓰이면서 연결어미나 종결어미로 발달하기 때문이다.

의존명사의 문법화를 다룬 연구로는, 고대국어 또는 중세국어의 의존명사들을 분석한 안신혜(2013, 2014), 이병기(2014), 최대희(2017), 서정호(2019), 19세기 후기의 의존명사 문법화를 방언 자료를 통해 분석한 최전승(2007) 등이 있고, 대표적인 의존명사인 '것/거'를 다룬 최대희(2010, 2012)와 이현희(2017), 또한 '터'를 다룬 송대헌(2014)과 홍승아(2023) 등의 연구가 있으며, 의존명사의 결합관계, 분포, 기능을 두루 살핀 이영제(2014a,b)가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개념은 Tsunoda(2013, 2020)에서 제안한 '인어구문'('mermaid construction')으로, 인어구문이란 명사, 특히 의존명사가 특정한 통사적 구문에 위치하면서 형태통사적으로는 명사의 품사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문장 내의 기능으로는 술어의 지위를 가지는 구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범언어적으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한국어에서는 대표적으로 [관형어 +(의존)명사 + 계사/경동사]의 구조를 가진 '-ㄹ 법하다', '-ㄹ 수 있다', '-ㄹ 지경이다', '-ㄴ 모양이다' 등을 들 수 있다. J Kim(2020)에서는 이 구조에 들어가는 명사들이 약 70개 정도 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상당수가 의존명사로 분류된다. 의존명사는 통사적 독립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탈색이 심한 경우가 많아 의미적 기여 없이 단순히 형태통사적 자리를 채우는 명사화 표지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존명사 부류들을 다룬 연구로는 시정곤(2010), 이금희(2007, 2012), S Rhee(2012b), 송대헌·김희숙(2014), 이회환(2015), J Kim(2020)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의 문법화 현상을 형식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T S Kim(2016, 2017a, 2017b, 2021, 2023)등 일련의 연구가 있다.

명사류의 문법화 분석 중에는 인칭대명사나 호칭어, 지시사의 문법화를 다룬 논

문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선웅(2007), 민경모(2007), 박선자(2008), Song·Heine (2017), 김아림(2018), S Rhee(2019c), 홍성심(2015) 등의 연구가 여기 속한다. 특히 한국어의 인칭대명사는 개방범주적 성격이 강해서 이 범주의 구성원들의 지위와 어휘 강도의 변이가 심하며 특정 담화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들의 유입이 이루어져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공하고 있다.

어휘적 층위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주요 범주로는 접사와 접어가 있는데 다른 연구 주제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였다. 접어는 형태통사적으로 결합 강도가 낮고, 파생접사로 총칭되는 파생접두사와 파생접미사는 독립된 어휘의 자격이 소실됨에 따라 공기하는 어휘에의 종속성이 있고 규칙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형태로 여겨지는데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에 어휘성이 강하여, 이들의 발달은 미약한 문법화(weak grammaticalization)로 간주된다. 대상 기간 동안 이 부류들의 발달에 대한 연구로는 백채원(2021), 손춘섭 (2014), 왕방(2009), 이광호(2007), 이정민(2020), 채희락(2007), H-R Chae(2020), 홍달오(2014)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채희락(2007)과 H-R Chae(2020)에서는 기존의 접사와 접어의 분류체계를 재고하면서, 띄어쓰기의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한국어에서는 띄어쓰기가, 관련된 언어형태들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적 응집성 정도와 문법화의 진행 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언어형식의 문법적 지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있는 논의라 할 수 있다. 유사하게 한용운 (2008)에서도 다양한 문법 범주들로 설정된 사전적 분류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나 범주를 재정립하여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논한 바 있고, 최형용(2017)에서도 사이시옷과 관련된 사전의 비일관성과 문법화의 관련성을 논의한 바 있다.

3. 통사적 층위 문법소의 문법화

통사적 층위에서 관찰되는 대표적인 문법화 부류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용언의 생성이다.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는 기능적 특성은 분명하나 형태적으로는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한 문법범주로 보기 어려운 범주이다. 한국어의 연결어미는 많은 구성원을 갖고 있고 형태적으로도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교착의 특징 상 많은 중첩 형태들과 공시적으로 분석이 어려운 포맨토 형태들이

존재한다. 연결어미는 문법화 연구의 중요한 대상 범주인데, 핵후치(head-final)언어의 특징 상 형태소의 연속체 중 마지막 항목이 해당 구문의 문법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결사가 최종 접속하는 연결어미와 종결표지가 최종 접속하는 종결표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언표지가 최종 접속 표지의 문법적 지위에 따라 연결표지와 종결표지로 분화되기도 하는 것이다.

연결표지의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고대국어, 중세국어 등의 자료에 기초한 연결어미의 문법화를 다룬 장요한(2009, 2010), 정혜선(2010a, 2023), 장윤희(2010) 등이 있고, 부동사(converb)라고도 불리는 접속어 '-서', '-고', '-니' 등과 결합한 연결어미의 문법화를 다룬 안주호(2007), M Kim(2010), 목지선(2012, 2013), 송대헌·황경수(2013), 박호관(2014) 등이 있고, 보조사 '-는', '-도' 또는 선어말어미 '-느', '-리' 등과 통합된 연결어미를 다룬 김종록(2004, 2007a, 2007b, 2008, 2010), 함병호(2013)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기 때문에', '-ㄴ 뒤에', '-어 가지고' 등과 같이 복잡한 형태통사적 연속체의 문법화를 다룬 임근석(2008, 2016)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우언적 통합체를 '문법적 연어'라 칭하고 있다.

문법화되는 구문에서 핵심적인 어휘 항목에 초점을 둔 연구로는, '가지다'를 포함하는 구문의 문법화를 다룬 M Kim(2008), E Kim(2015), 하영우·신지영(2012), 손혜옥(2012), '닥다/다그다'를 다룬 김준기(2010), 박종호(2015) 등이 있고, 핵심어휘 항목으로(의존)명사가 관여하는 구문의 문법화를 다룬 이금희(2007), S Rhee(2012b), 송대헌(2015) 등이 있다. 연속체의 최종항목의 문법적 지위가 전체 구문의 문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일반적 원리와 달리, '결과', '경우', '나머지', '대신', '만큼' 등처럼 명사로 최종 접속된 구문이면서도 연결표지의 역할을 하는 특이한 구문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발달을 논의한 연구로 김지은(2013), 곽일성(2017), 김정남(2017), 목지선(2023) 등이 있다.

한국어의 연결표지 문법화에서 특이한 현상 중 하나는 인용을 나타내는 표지를 포함하는 연속체가 연결표지나 담화표지로 문법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다니까', '-다면서', '-겠다고' 등을 분석한 구종남(2016, 2017, 2019, 2020), 채숙희(2011), 장요한(2013) 등이 있다. 이 부류에 속하는 많은 연결표지는 실제 인용이 아닌 허위 인용(유사인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이 허위 인용은 연결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탠스 부사에도 관여하는데 이를 S Rhee(2009a)

에서는 '빌려온 입'('borrowed mouth'), S Rhee(2019a)에서는 '가짜 인용'('fake quotations')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가정과 양보를 표시하는 '-어봐(라)', '-어봤자' 등을 다룬 이금희(2019)도 주목할 만하며 S Rhee(2014a)에서는 '뭐냐면' '왜냐면' 이 담화표지로 문법화한 예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담화 통사적 기능을 가진 '-기는'을 분석한 구현정(2012), 목적이나 이유를 표시하는 '-느라고', '-으려고'를 분석한 백낙천(2012), 담화 맥락에서 문법화된 이유표지 '-길래'를 다룬 진정란(2005), 역접 연결어미 '-지만'을 다룬 이지영(2007), 범주적인 판단이 어려운 연결 및 종결어미 '-ㄴ지', '-지' 등을 다룬 최정도(2013),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담화표지에서 접속어미로 발달한 '-어설라마' '-고서리' 등을 다룬 황병순(2012)의 연구가 있다.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범주의 구성원이 매우 많고 형태적으로도 복잡하여, 이미 문법화 연구 초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 발달과정에 주목하였다. 또한 종결어미는 역사적으로도 소멸과 생성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범주로서, 현대 한국어에서 공시적으로 의향법, 공손법의 화계에 따라 380여 개의 종결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범주의 유동성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김태엽 2001:147-151). 이 범주의 문법화 연구로는 중세국어 등 역사 자료에 나타나는 종결형을 다룬 고은숙(2010, 2012, 2013), 김병건(2011), 이유기(2012), 장윤희(2012), Kawasaki(2016), 이소흔(2017), S Rhee·H J Koo(2017), 전기량(2018)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생략 구조로부터 종결표지로 발달한 '-ㄴ/ㄹ 걸', '-게', '-기를', '-자고', '-다는', '-하고는' 등을 다룬 정혜선(2017), 조은영·이한민(2011, 2015), S Yae(2022), 최동주(2009), S Rhee(2017a), M Kim(2020), K-D Ahn(2022) 등의 연구가 있고, '중', '듯', '줄', '것' 등과 같은 의존명사 뒤의 술어부를 생략한 새로운 종결형의 생성을 '잠정문법'(emergent grammar)과 창의성의 측면에서 다룬 구현정(2020)이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인어구문' 중 하나인 '-ㄴ/는 것이다'를 연구한 조인정(2011), 박나리(2012) 등이 있는데, 박나리(2012)에서는 이 구문의 주요 기능을 화자가 '메타적 논평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종결어미가 화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존칭, 공손법 등 화자간 스탠스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새로 생겨나는, 이른바 비표준 종결형태들인 '-실게요', '-을까요', '-을게요' 등의 생성을 문법화 관점에서 연구한 J Kim(2010), H J Koo·S Rhee(2013), 안주호(2016), 윤재학·김기국

(2022) 등이 있고, 주체존대와 청자존대의 불일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서' '-서 봐' 등을 다룬 M Kim(2023)이 있다.

종결어미의 발달에서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종속절을 남겨 두고 주절을 생략함으로써 종속절이 주절로 통사적 상향이동('syntactic upgrading', Heine 외 1991, S Rhee 2012a, 2020a)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를 탈종속화('insubordination', Evans 2007, 2009, Evans·Watanabe 2016)라 하는데 한국어와 같이 핵후치 언어에서는 탈종속화가 일어나면 종속접속 표현이 종결표지로 재분석되면서 남아있는 종속절과 생략된 주절과의 의미 관계로부터 다양한 기능들이 재해석되어 생성되는 것이다(S Rhee 2020a). 대표적으로 '-거든', '-면서', '-니까', '-다니', '-는데', '-ㄹ텐데', '-다고' 등의 새로운 종결형이 있고 이들의 문법화를 다룬 논문으로는 S Rhee(2008a, 2008b, 2012a), S Rhee·H J Koo(2020), H-S H Kim·S-S Yoon(2009), 손옥현·김영주(2009), 이금희(2014), A Kim(2015), 목지선(2015, 2018), 김혜지(2016), 이금영(2015), 조미희(2016), 이소흔(2017), 김재욱·박동화(2017), 박주원(2020), 전휘(2022)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종속적 연결어미는 아니나 유사한 기제에 의해 새로운 종결형으로 생겨나게 된 '-ㄴ/ㄹ걸'에 대한 연구로 이금희(2013), 전휘(2022), 최동주(2009)가 있다. 특히 최동주(2009)의 '-ㄹ걸' 연구에서는 추측의 기능은 '-ㄹ걸세'의 생략형으로부터, 후회와 아쉬움의 '-ㄹ걸'은 '-ㄹ것을'에서 온 것으로 발달 경로가 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민하(2011)의 연구에서는 연결어미가 종결기능을 획득하는 경우 억양의 역할이 크게 작용함을 논의한 바 있다.

비종결표지에서 종결표지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생략이 관여하는 또 다른 부류로 인용구문이 포함된 구문들이 있다. 한국어는 인용에 폭넓게 관여하는 '-고'가 있어서 인용된 절의 의향법에 따라 '-다고', '-라고', '-냐고', '-자고' 등이 보문소의 역할을 하는데, 이 보문소가 종결형으로 쓰이기도 하고, 인용표현을 인도하는 별도의 주절이 없이 축약된 술어와 함께 융합된 형태로 종결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단다'(< '-다고 한다')를 비롯하여, '-냔다', '-잔다', '-대', '-다니까'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인용형식에서 '-다는'과 같이 관형표지로 발달하거나 '-이란'처럼 후치사의 기능을 갖게 된 형태들도 있다. 이처럼 인용표지가 관여하는 문법화 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S Rhee(2009a, 2014b), 윤혜영(2008, 2011, 2016), S-O S Sohn(2011), 이숙(2011, 2012), 채숙희(2010, 2011, 2015), 구현정(2015a), 전후민

(2015), 양지현(2015), 김건희(2015), 송창선(2016), H J Koo·S Rhee(2019), 이주현(2021), 전휘(2021, 2022), 김선혜·남신혜(2022), 박형진(2022), 김용하(2023) 등 다수가 있다.

또한 한국어 문법화 현상 중에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의 대표적인 범주에는 보조용언이 들어 있다. 이는 한국어가 동사의 연쇄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연쇄동사언어('serial verb language')이기 때문인데 DeLancey(1991: 1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쇄동사구문은 문법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문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연쇄동사구문은 동사들을 직접 연결하는 일부 연쇄동사언어들과 달리 부동사(converb)로 알려진 '-아', '-게', '-지', '-고' 등의 접속어를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연쇄된 동사들의 의미뿐만 아니라 접속어의 의미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문법표지들이 만들어진다(구현정 1987). 대표적으로 이동동사인 '가다', '오다'를 포함한 연쇄구문과 보조용언을 연구한 김문기(2007a, 2007b, 2008), S Rhee(2008b), 안신혜(2006), 김윤신(2008) 이정화(2009), 김선영(2016), 김효진(2017), 임병민(2009)이 있고, 존재동사 '있다'를 포함한 보조용언을 연구한 정언학(2007), H-R Chae(2018), 김효신(2020) 등이 있으며, 배치동사와 제거동사인 '두다', '놓다', '버리다', '치우다'를 포함한 보조용언을 연구한 임병민(2009), K Y Shin(2010), H S Lee(2013), 조미희(2013), 홍달오(2015)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다'와 관련한 연구인 함희진(2008)과 김미경(2020), 시각동사 '보다'와 관련한 연구인 고광모(2015)와 정연희(2017), 그리고 중세한국어와 근대한국어에서 보조용언 '뜨리다'를 연구한 이병기(2017) 등이 있다.

4. 문장 층위 문법소의 문법화

문장 층위의 문법소는 대개 작용역이 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시상태가 표시된 한정절의 동사형태소 중에서 대체로 상표시를 제외한 범주들, 즉 시제, 서법, 양태가, 비록 이들의 경계가 선명한 것은 아니지만, 문장 또는 절 층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문법표지로 볼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은 범주는 양태, 특히 증거성 양태(evidentiality)이다. 증거성은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표지로서 대개 직접 자신의 인식

에 의한 것인지, 간접적으로 상황적 맥락에 따른 자신의 추론에 의한 것인지, 특정한 타인으로부터 얻은 것인지, 불특정 다수 사이에 널리 퍼진 소문인지 등을 구분하는데, 한국어는 형태통사적으로 단일체계를 갖추지 않고 흩어져 있는 분산형 체계('scattered system', Aikhenvald 2004, I Kwon 2012)를 갖추고 있다. 이 체계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논의는 정경숙(2012), I Kwon(2012a, 2012b), H-M Sohn(2018), 정인아(2010) 등이 있고, 가장 많이 논의된 '-나보다' '-ㄴ가보다' 'ㄴ/는/ㄹ 것 같다' 등과 같은 추론 증거법에 집중한 연구로는 정경미(2016), I Kwon(2012c), K Kwon(2018) 등이 있다. 또 '-ㄹ 것이다', '-ㄹ 모양이다', '-ㄹ 듯하다' 등 의존명사를 동반한 다양한 구조들에 대해서는 김정민(2012), 정경미(2016), 김선혜(2021)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또한 정보의 출처가 타인인 경우 명제의 제시는 인용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 역사적으로 보문소의 흔적을 가진 '-대', '-단다', '-다니', '-다며', '-다는' 등과 같은 많은 표지들이 증거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를 다룬 연구로 M Ahn·Yap(2015), S Rhee·H J Koo(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정민(2016)에서는 '무섭다', '슬프다', '싶다', '어지럽다' 등과 같은 심리술어가 증거성 표지의 실현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었다. 증거성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형태를 증거성 양태표지로 간주해야 할지 인식적 양태표지로 간주해야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의 경우 인식적 양태표지로서 의외성을 나타내는 것인지 증거성 양태표지로서 화자가 감각을 통해 직접 취득한 정보임을 나타내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의로는 송재목(2009, 2011, 2014), K-S Chung(2007), 정경숙(2012, 2014), 권익수(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증거성 표지는 제시하는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고, 정보의 출처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태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성 양태는 인식적 양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민·박진호(2020)는 증거성과 다양한 양태에 대한 논문을 싣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표시하는 인식적 양태에 대한 연구로는 추정된 정보를 나타내거나 그에 대한 가치 평가를 표시하는 구문들을 다룬 정담(2021, 2022), 정연희(2012), 정혜선(2013)등이 있고, 두려움을 표시하는 이른바 경계법과 관련된 문법화 현상을 다룬 도재학(2018), S Yae 외(2023) 등이 있다.

경어법이나 공손법 표지는 문장의 주어와 화자, 청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장 층위와 담화 층위가 동시에 관여하는데, 이 표지들은 일부 어휘적인 방법으로도 표시되지만 대개 동사 형태소로 실현된다. 한국어는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경어법, 공손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인칭표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지들의 문법화 과정을 중세, 근대로부터 역사적으로 살핀 연구로는 이태환(2008), 김현주(2007, 2010, 2014), 김태우(2018), 고광모(2012, 2013, 2016), 양해승(2014) 등이 있고, 대우표현의 변화를 일본어와 비교한 나희숙(2014), 지속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 체계가 부적합해지고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는 현상을 논한 구현정(2009a), M Kim(2023) 등의 연구가 있다.

5. 담화 층위 문법소의 문법화

담화 층위에서의 문법화 현상은 다양한 세부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가장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은 스탠스표지와 담화표지이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편의상 둘로 나누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스탠스는 심리적 태도(심태)로서 포지셔닝('positioning'), 관점('point of view')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는데, S Rhee(2011a: 405)에서는 스탠스를 태도(attitudinal), 인식(epistemic), 정의(emotional), 증거(evidential) 등의 하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문법화 연구에서는 스탠스가, 화자가 청자의 다양한 체면적 필요('face needs')를 반영하는 현상인 상호주관화('intersubjectification')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탠스는 어휘의 선택을 비롯하여, 명제나 대상을 지칭하는 방식, 대화 상대자를 대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면에서 드러나는데(H J Koo·S Rhee 2016), 최근의 문법화 연구에서도 다양한 문법형태 또는 어휘형태들이 스탠스를 나타내는 방식과 그러한 방식이 문법체계 안에서 고정화되는 과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문장의 종결방식에 따른 스탠스 차이를 논한 연구가 많은데 여기에는 S Rhee(2011a, 2016b), H J Koo·S Rhee(2013a, 2013b, 2016), M Kim(2008, 2020, 2021, 2022), H S Kim·S-O S Sohn(2015), M Ahn(2016) 등의 연구가 있다. 보조사, 후치사, 어미 등에 나타나는 스탠스를 다룬 S Rhee·H J Koo(2014, 2015), 김태인(2019), K-D Ahn(2020), 보조동사와 관련된 스탠스의 문법화 현상을 논의한 조미희(2013, 2016), E Kim(2016), 대우법 요소를 모두 제거한 특이한 인용형식을 다룬

S Rhee(2007b)의 연구가 있으며, 부정어를 포함하면서도 부정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수사적 부정 구문인 허사부정('expletive negation')을 한국어와 프랑스어, 일본어에 초점을 맞춰 다룬 Y Choi·C Lee(2017)의 연구가 있다.

담화표지는 담화상의 상호작용을 반영하고 있어서 스탠스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담화표지의 문법화에 관한 연구는 그 분량이 방대하여 모두 나열하기 어려운데 스탠스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의 담화표지 논문만 제시하면, S Rhee(2013, 2015, 2016a), Kuteva 외(2018), M Ahn·Yap(2020, 2023), H An(2018) 등을 들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연구 업적이 이루어진 문법화 주제는 담화표지이다. 담화표지는 근원구조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한데 편의상 몇 가지 근원구조별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진실'을 나타내는 어휘는 범언어적으로도 강화사를 거쳐 담화표지로 발달하는 경우가 자주 관찰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도 '정말', '참', '진짜', '사실상' 등의 어휘가 담화표지로 발달된 경우들이 김영철(2007), T Kim(2013), 김태호·정선영(2012), S Rhee(2021a), S Eom·S Rhee(2021) 등의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 부정어 '아니'와 긍정어 '그래', '맞아', 그리고 근접지시와 원격지시의 긍정과 부정의 대립을 보이는 '이런', '저런' 등에서 발달한 담화표지들은 구현정(2008), 정희창(2010), 이한규(2011, 2012), 강민정(2021), 강소영(2014), S H Kim(2018), A Kim(2018), 오은화(2020), 김현지(2017), 안윤미(2012), S Rhee(2015) 등에서 다루었다. 접속사가 담화표지의 근원범주가 되는 것은 범언어적인 공통점 중의 하나인데 한국어의 '그런데',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등에서 문법화된 담화표지는 J B Choi(2007), 강소영(2009), 김미선(2012), S H Kim·S-O S Sohn(2015), S Rhee·H J Koo(2021), M S Kim·S Rhee·H Y Smith(2021), S-O S Sohn(2016) 등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또한 의문사 '뭐', '어디', '왜', '무슨' 등에서 발달한 담화표지는 박석준(2007), H Lee·S-O S Sohn(2022), S Rhee(2016a, 2016c), Kuteva 외(2018) 등에서 다루어졌으며, '다', '자', '좀', '그냥', '막', '이제' 등과 같은 부사어에서 담화표지로 발달한 경우는 김영철(2008, 2015), M S Kim·J Kim(2011), 김귀화(2014), 송인성·신지영(2014), K Ahn(2009), 안정아(2008), M Ahn·Yap(2020, 2022), 안주호(2012), 조민정(2015), H An(2018), 지은영(2020), 등에서 논의되었다. '어', '아', '야', '자' 등과 같은 감탄사나 '막이래', '말이다', '말이야'처럼 문장형식을 갖추고 감탄적 뉘앙스가 있는 구문들로부터 발달한 담화표지들은 안주호(2012), M S Kim·

S H Kim·S-O Sohn(2021), M Ahn·Yap(2013, 2023), 강민정(2022), 김영철(2008), 최화니(2012), S Rhee(2013, 2020b), 김민국(2011) 등에서 다루어졌다. 담화표지가 통상 다기능적이고 기능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운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화표지의 운율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여러 연구 중 송인성·신지영(2014), 송인성(2015), 고언숙(2015) 등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도 한국어의 여러 담화표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거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담화표지의 기능 결정요소들을 다룬 황병순(2010), 전영옥(2017), 심란희(2018), 구현정(2018), Heine 외(2021:196-210), 이윤경(2016) 등의 연구가 있다. 특기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황병순(2012)에서 소개된 '-어설라마', '-고서리', '-으니께네'처럼 담화표지와 관련된 구문이 접속어미로 발달하는 현상이다.

6. 언어접촉, 언어비교, 언어변이

조사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최근의 연구 동향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어의 문법화를 언어접촉, 언어비교, 언어변이 등과 같은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언어접촉과 언어변화는 문법화 관점에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접촉에 의한 변화를 다룬 박강훈(2016), 중국어에서 차용된 단어들의 문법표지로의 변화를 다룬 S Rhee(2021a, 2021b), Narrog·S Rhee(2013), Narrog 외(2018), S Eom·S Rhee(2021), 양언(2011), 정혜인(2017), 조현용(2009) 등의 연구가 있다.

한국어의 문법화 현상을 다른 언어의 문법화 현상과 비교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중 가장 활발한 비교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연구로 강덕구(2008), 김정민(2012), 나희숙(2014), Narrog·S Rhee(2013), Narrog 외(2018), 문창학(2017), K H Park(2013, 2014), 박강훈(2022, 2023), 윤현미(2013), 최진희·조선영(2013), 홍영주(2015) 등이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법화를 비교한 연구로 곽녕·유현경(2021), 심지영·박은석(2019), 여나(2015), 오윤지·김혜경(2023), 이선희·신지언(2017), 한경숙(2017)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어 현상을 범언어적 시각에서 비교한 M Kim(2018),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한 M Ahn(2010), 한국어와 태국어를 비교한 박경은·이성하(2018),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비교한 김경희·이성하(2018),

한국어와 독일어를 비교한 조경화(2018), 한국어, 독일어, 영어, 중국어를 비교한 이강호(2015), 한국어, 프랑스어, 일본어의 허사부정을 비교한 Y Choi·C Lee(2017)의 연구가 있다.

언어변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방언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갈래로 일어난 통시적인 언어변화는 공시적인 언어변이 형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변이는 문법화 연구에 공시와 통시의 보완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러 방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변이에 대한 연구로 김고은(2015), 이상신(2014), 황병순(2014) 등이 있고, 해외 한국인 거주지역의 방언을 중심으로 연구한 Barnes-Sadler(2016), Barnes-Sadler·J H Yeon(2019), 경상방언의 변이를 연구한 류성기(2016), 박근배(2013), 박신명·이혁화(2013), 이혁화(2015), 임규홍(2008, 2009, 2011), 주지연(2020), 강우원(2012, 2013) 등이 있다. 전라방언의 변이를 연구한 강희숙 외(2009), 이기갑(2009, 2010, 2016), 임동훈(2010), 김영철(2015) 등이 있고, 기타 강릉방언, 정선방언, 청송방언, 중부 및 남부방언을 연구한 김옥영(2014), 유세진(2014), 최전승(2007), 최영미(2009), 김세환(2012) 등 여러 연구들이 있다.

7. 기타 언어변화

위에서 소개한 문법화 연구 이외에도 일반적인 언어변화를 다룬 다양한 논문들이 대상 기간 중 출간되었는데, 여기서는 부사어, 어휘형성과 어의변화, 특수구문 등을 다룬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부사어는 문법화 연구에서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성하(2016:114-11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사는 범주적 지위가 개방범주이면서도 문법적 범주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범주로 알려져 있고, Heine·Kuteva(2007: 111)에서도 부사는 제1층위의 명사나 제2층위의 동사보다 늦게 생성되는 제3층위에 속해 있으면서 제4층위인 부치사, 지시사, 상표지의 근원범주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부사의 생성은 '미약한 문법화'의 한 유형으로 볼 만하다. 특히 양태 부사어는 스탠스 표지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정도 부사어는 강화사의 발달과 관계가 깊고, 많은 부사어들이 담화표지로도 발달한다는 점에서 문법화 연구에서 부사어는 주목해야 할 부류에 속한다. 대상 기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로는 김건희(2017),

안정아(2010), Wang(2017), 이광호(2023), 이금영(2016), 이현희(2009), 이효윤(2019), 한길(2012, 2017) 등을 들 수 있다.

어휘형성과 어의변화는 어휘화와 문법화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특히 신조어는 어휘항목이 되기도 하고 문법항목이 되기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언어사용자의 표현성 확대 욕구와 창조성 발현 욕구의 산물이다. 어휘생성에 있어서는 미각어를 다룬 S Rhee·H J Koo(2017a, 색채어를 다룬 S Rhee(2019b), 음식 이름을 다룬 J-I Park(2010), 합성동사를 다룬 손뢰(2015), 합성명사를 다룬 Kanokwan(2010), 다양한 기제에 의한 신어 명사들을 다룬 김용선(2010), 연쇄동사를 통한 어휘화와 보조동사화를 다룬 J Han(2010), 함희진(2010), 부동사 '-고'로 접속된 부사구 생성을 다룬 황화상(2013) 등을 들 수 있다. 의미 확장에 따른 언어 변화를 다룬 논문으로는 구현정(2009b), Khammee·S Rhee(2022), 이현희(2010), 서형국(2012), 임지룡(2014, 2016), 정동경(2013), 정수진(2012), 정한데로(2012), 조경순(2015), 유초희(2016), M Kim(2008) 등의 연구가 있다. 또한 SNS를 통한 언어변화를 다룬 논문들로는 S Rhee(2023a), 김영선 외(2015), 오효정·김종혁(2021), 장경현(2019), 전민경(2023) 등이 있다. 새로운 형태의 형성은 문법항목의 영역에서도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유사한 문법항목을 중첩시켜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이를 석주연(2008)에서는 '의미의 잉여성'이라 칭하였다. 이런 잉여적인 문법표지의 창조행위는 표현력과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현상은 S Rhee(2021c)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특수구문의 생성과 변화와 관련한 연구들도 주목해 볼만하다. 예를 들어, '뭐랄까?', '그게 뭐냐면' 등과 같이 진정한 의문문이 아닌 수사의문 또는 의사의문문이 포함된 구문들이 다양한 담화표지나 문법표지로 발달한 논의를 한 S Rhee(2008a, 2019a), '갑니다, 가요!', '어서 와요, 어서와' 등과 같이 화계를 낮춰가며 문장을 반복하는 특수구문의 발달 과정을 논의한 H J Koo·S Rhee(2023), '가다가 서다가', '싫으나 좋으나',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반복 구문을 논의한 진관초(2018) 등의 연구가 흥미롭고, '뇌물을 받잖아요? 큰일나요'나 '뇌물을 받지요? 큰일나요'처럼 종결형인 '-잖아요?'나 '-지(요)?'가 조건을 나타내는 표지로 발달한 현상을 논의한 이의종(2022)도 구문의 생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문법화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나 언어 체계의 변화를 다룬 구현정(2015b, 2016), 성별 차이에 의한 언어 변화를 논의한 조민하(2021), 구어와 문법화의 밀접한 관계를 논의한 이성하(2008), 신문언어의 변화를 다룬 강범일(2021), 호칭어나 인칭대명사의 변화를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논의한 S Rhee(2019c)가 있다. 또한 어의 변화도 문법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어원 연구를 폭넓게 조망한 이기문(2008)이 있다.

Ⅲ. 연구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기간인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활발한 문법화 현상, 또는 문법화와 관련한 현상들이 연구되었다. 이는 한국 언어학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지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국제적인 연구 동향에서도 문법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개별 논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분야의 서적형태의 다양한 저술들이 산출되었다. 특히 문법화 단행본, 편집저서, 사전, 핸드북인 Bybee(2015), Narrog·Heine(2021), Nieuwenhuijsen·Garachana(2019), Saavedra(2021), Kuteva 외(2019), Narrog·Heine(2011, 2018), van Olmen 외(2017), Devos·van der Wal(2014), Bisang·Malchukov(2017), Stathi 외(2010), Reinöhl(2016), Esseesy(2010), Robbeets·Cuyckens(2013), von Waldenfels(2012), Rossari 외(2009), Van linden 외(2010), Smith 외(2015), Baldi·Cuzzolin(2011), Dahl(2015), Verhoeven 외(2008), Davidse 외(2010), Seoane·Lopez-Couso(2008), Kranich(2010), Traugott·Trousdale(2010) 등 중요한 저술들이 다수 출판되었으며, 최근 새로이 조명을 받는 담화표지의 문법화를 다룬 저술도 Traugott(2023), Heine 외(2021), Aijmer(2013), Brinton(2008, 2017), Degand 외(2013), Fedriani·Sansò(2017), Pons Borderia·Loureda Lamas(2018), Lansari(2020), Nyan(2016), Urgelles-Coll(2010), Maschler(2009), Hancil 외(2018) 등 다수의 단행본과 편집저서들이 출간되었다. 또한 증거성과 관련된 다양한 양태성을 다룬 Marín-Arrese 외(2014, 2017), Diewald·Smirnova(2010), Cornillie(2007), Bergqvist·Kittila(2020), C Lee·J Park(2020), Aikhenvald(2018),

Carretero 외(2023) 등 다수의 저술들이 출간되었다.

앞으로의 연구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언어학의 동향이 국제적 학술동향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한국어의 문법화 연구도 위에 나열한 저술들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취하여 많은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질 주요 주제와 쟁점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한국어 문법화 학자들은 스탠스와 상호주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어 사용은 실제이든 가상이든 청자 또는 독자를 전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인지적, 감정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배려가 포함되기 마련이며, 자신의 발화 내용 또는 담화 상대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통해 역동적으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Du Bois(2007)에서는 각각 상호주관성과 주관성으로 보았는데, 즉 상호주관성은 담화 참여자에 대한 포지셔닝, 주관성은 명제에 대한 포지셔닝으로 본 것이다. 상호주관성과 주관성으로 나뉘는 스탠스는 어휘 요소뿐만 아니라 문법 요소로 실현되는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의미적으로 정교한 문법 범주'를 폭넓게 가지고 있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문법표지가 스탠스를 나타내는 예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명사 형태소인 조사, 보조사, 후치사의 경우만 보아도 '커피를 마시자'. '커피나 마시자', '커피도 마시자', '커피나마 마시자', '커피라도 마시자' 등 다양한 표현들의 차이는 대체로 화자가 커피 또는 커피를 마시는 행위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며, 통상 과거 시제나 완료를 나타내는 보조동사구문이라 불리는 형태들도 '밥을 먹었다', '밥을 먹어 버렸다', '밥을 먹어 치웠다', '밥을 먹어 놓았다', '밥을 먹어 두었다'도 명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사건의 기술에 다양한 화자 스탠스가 반영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의 다양한 문법 표지들이 스탠스 측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러한 기능이 문법화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국제적인 학문동향을 따라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다른 전망은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확장될 것이라는 점이다. 담화표지는 그동안 그 용어만도 수십 개에 이르는 등 학자들 사이에 담화표지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담화표지의 자격 기준도 선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특히 Heine 외(2021), Traugott(2023), Brinton(2008, 2017), Beeching (2016) 등 담화표지 연구의 선도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eine 외(2021)에 따르면 담화표지의 진단적 자질은 문장외적 의미, 메타텍스트적 기능, 통사적 독립성, 운율적인 비통합성, 광범위한 작용역, 위치상의 비구속성 등을 들고 있는데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화표지의 대체적인 특성은 파악이 가능하다. 언어의 변화는 의미협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담화, 특히 대면담화 상에서 이루어지며, 대면담화에는 많은 담화표지가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화표지를 연구함으로써 언어의 전략적 장치들과 그 기능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담화표지가 단순한 어휘형태로만 아니라 복잡한 구문이나 완성된 문장, 심지어는 공백이 포함된 템플릿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담화표지의 연구 대상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담화표지 연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주제는 이른바 '변방'(periphery)의 문제이다. 변방이란 대개 절의 핵심구조를 벗어난 앞부분을 좌변 또는 좌변방(left-periphery)이라 하고, 핵심구조를 벗어난 뒷부분을 우변 또는 우변방(right-periphery)이라 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관찰된 특정 예들을 통해서, 언어형태의 의미가 주관적인 의미로 변할수록 좌변으로 이동하고 상호주관적인 의미로 변할수록 우변으로 이동한다는 변방비대칭가설(the peripheral asymmetry hypothesis)을 제안한 바 있고(Beeching·Detges 2014 참조), 여러 연구에서 이 가설의 검증을 시도한 바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이 가설이 지지되기 어렵거나 경향성이 미약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된 연구가 모두 개별 항목들 몇 개에 대한 분석이었으므로 더 많은 항목에 대한 더 충분한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이 가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OV어순의 언어와 VO어순의 언어가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도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는 담화표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국제적인 연구동향 중 하나로 생략구문이 문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보고되었지만 Evans (2007)에서 '탈종속화'(insubordination)란 개념이 제안된 이래 범언어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탈종속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앞 2.3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처럼 핵후치 언어에서 주절이 생략되면 발화의 최종 형태가 접속사가 되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다양한 의미들을 생략된 주절과 남아 있는 종속절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화용적 추론들을 흡수하여 접속사의 의미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기도 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겪으면서 종결표지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니까', '-거든', '-면서' 등과 같이 이미 탈종속화를 겪은 여러 종속접속사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연구되지 않은 다수의 표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탈종속화처럼 주절과 종속절을 갖춘 복문구조에서도 생략이 일어나지만 많은 언어에서 등위접속어에 의한 등위접속문도 유사한 기제에 의해 '탈등위화'(incoordination, Kuteva 외 2015, S Rhee 2020a)현상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그럼 잘 가고.' '자네 아버님은 편안하시고?', '그러면 모를 줄 알고?'처럼 등위접속에 사용되는 연결표지가 문장 종결표지로 사용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또한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밝힌 것처럼, '더 잘 할 걸!' 등과 같이 목적격 표지로 종결되는 생략구문, '학교까지 걸어서 가게?',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잘 안 될 걸?'처럼 다양한 구조의 생략구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생략구문은 화용적 추론이 언어 변화와 언어 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언어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 이 주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문법화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또 다른 분야는 이른바 '담화문법'(discourse grammar)인데, 이 개념은 Bernd Heine와 그의 동료들이 Kaltenböck 외(2011), Heine 외(2013), Heine(2013) 등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통상 '문법(grammar)'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규칙의 집합체를 '문장문법(sentence grammar)'이라 부르고, 문장문법의 규칙들을 따르지 않는 담화표지(discourse marker), 부름말(vocative), 관용표현(formula of exchange), 명령(imperative), 감탄(interjection), 개념적 삽입어(conceptual thetical) 등을 '삽입문법(thetical grammar)'라는 범주 안에 넣었다. 즉 언어현상 전체에 존재하는 규칙들의 총체를 담화문법이란 개념으로 명명하고 이 담화문법은 문장문법과 삽입문법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최근 Heine(2023:10)에서는 삽입문법을 '상호작용형식(interactives)'이라는 범주로 병합하여, Hey!와 같은 주의끌기(attention signals), Shh!와 같은 명령(directives), Indeed.와 같은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 Great!와 같은 평가(evaluatives), Thud!와 같은 의성의태어(ideophones), Ouch!와 같은 감탄(interjections), Right?와 같은 응답유도(response elicitors), No.와 같은 응답(response signal), Bye!와 같은

사회적 관용표현(social formulae), Mom!과 같은 부름말(vocatives)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안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언어형태와 언어형식들이 전통적인 개념의 '문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여 예외적인 언어형식으로 취급되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 획기적인 통찰력을 제시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문법'의 지평을 넓혀 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담화표지 연구가 담화표지뿐만 아니라 이것이 속한 다양한 삽입문법의 부류들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확대 동향은 이미 많은 의성의태어 연구가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전에도 아프리카 여러 언어와 아메리카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한 의성의태어 연구들이 있었지만 특히 최근 Mark Dingamanse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Dingamanse 2011, 2012. 2015, 2017, 2018, Akita·Dingamanse 2019, Akita 2009, 2015)의 연구는 의성의태어의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왔다. 한국어는 의성의태어가 숫자도 많고, 구조도 음성상징의 규칙에 따라 체계적이고, 또 어휘파생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 어휘화뿐만 아니라 문법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기대되는 주제로 보인다. 삽입문법의 이론틀을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박동근(2015), 손달임(2012), N H Kwon(2018), H J Koo·S Rhee(2018), S Rhee·H J Koo(2017a), S Rhee(2019b), J Park(2018, 2020, 2022), 조창규(2023) 등의 연구가 있어서 이 연구성과들은 앞으로의 연구에도 좋은 기반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예상하는 문법화 연구의 국제적인 동향 중 하나는 유형론과 비교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이다. 문법화 학자들은 일찍이 문법화 현상이 해당 언어의 유형론적 특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다양한 유형론적 특징과 문법화 과정을 연구해 왔다. 이런 연구는 수많은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Narrog·Heine(2011, 2018), Heine·Narrog(2015) 등의 핸드북에 잘 결집되어 있다. 한국어가 가지는 다양한 유형론적 특징, 특히 문법형태들이 중첩되어 결합하는 교착성, 핵이 다른 언어형태의 뒤에 놓이는 핵후치, 비교적 자유로운 논항생략,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 또한 문화적 요소가 문법과 결합한 경어법, 공손법의 철저한 문법화 등 많은 요소들이 한국어의 문법화 현상에 큰 특징들을 부여하고 있다. 유형론과 비교문화와 관련된 국제 연구동향에 따라, 앞으로 한국어 문법화 연구도 유형론적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언어간 비교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가와사키 케이고. 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 - '깨달음'과 '복수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강덕구. 2008. 日本語と韓国語の補助用言の 文法化現象に関する研究.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강민정. 2021 TV홈쇼핑 쇼호스트의 담화표지 '아니' 사용 연구. 담화와 인지 28(1), 1-21.

강민정. 2022. 재표현 장치로서의 담화표지 '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계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9(4), 1-16.

강범일. 2021. 신문 언어 변화 양상의 계량적 연구 - 조선일보 1920-2019년 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강소영. 2009. 담화표지 '그러니까'의 사용에 내재한 화자의 담화전략 연구. 어문연구 60, 27-56.

강소영. 2014. 복합형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 아 근데, 아니 근데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44, 313-344.

강우원. 2012. 경남방언 있다아이가, 경남 방언의 대화 시작말 '있다아이가'류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30, 89-110.

강우원. 2013. 경남 방언의 대화 시작말 '머꼬'에 대한 연구. 우리말연구 33, 57-79.

강희숙. 2012. 통신언어에 나타난 역문법화 현상 고찰 - 접두사 '개-'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1, 61-87.

강희숙, 손춘섭, 양영희. 2009. 전남방언 여성호칭어의 사회언어학적 변이와 변화에 대한 연구. 호남문화연구 44, 167-228.

고광모. 2012. 15세기 국어의 종성 /ㅅ/에 대하여. - 종성 /ㅅ/을 확인하고 선어말어미 {-숩-}의 교체를 설명함. 국어학 64, 3-34.

고광모. 2013. 중세 국어의 선어말어미 '-ᄉᆞᆸ-'의 발달에 대하여. 한국언어학회 2012년 겨울학술대회 논문집. 83-91.

고광모. 2014. 주격조사 '-가'의 발달. 한국언어학회 2013년 가을학술대회 논문집. 69-78.

고광모. 2015. 추측을 나타내는 '-은가 보-, -은가비-, -은갑-'과 보조형용사 구문 '-을까 보-'의 발달. 언어학 73, 3-33.

고광모. 2016. 주체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ㅂ시-'의 발달 - {-삽시-}의 형성과 '-(으)ㅂ시-'에 이른 변화. 언어학 76, 57-85.

고광모. 2021. 존칭 주격조사 '-께서'의 형성: 의미적 혼태의 한 사례. 언어학 90, 155-177.

고광모. 2023. 주격조사 '-가'의 기원과 발달에 대한 재론 - 이용규·황선여(2021)와 양재영(2022)에 대한 비판. 언어학 97, 25-53.

고석주. 2019. '인가'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76, 1-19.

고언숙. 2015. 정도부사 '너무'의 의미와 의미운율: 음성 말뭉치 분석을 바탕으로. 음성음운형태론 연구 21(2), 223-243.

고영근. 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은숙. 2010. 국어의 문장 종류에 관한 역사적 고찰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6, 1-45.

고은숙. 2012. 후기 중세국어의 원망(願望)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어학 54, 81-115.

고은숙. 2013. 후기 중세국어의 감동법 어미 결합형 '-도소-' '-노소-', '-리로소-'에 관한 일고찰. 언어와 언어학 58, 1-28.

공나형. 2022. 연결 어미 '-게'의 의미적 확장과 통사적 제약. 어문론총 93, 7-39.

곽녕, 유현경. 2021. 한국어 '따르다'와 중국어 '跟'의 문법화 양상 비교 연구. 한글 82, 481-518.

곽일성. 2017. 결과를 나타낸 관용형태 '-(으)ㄴ 결과/ 끝에/나머지'의 문법화 정도와 통사화용적 의미. 국어교육학연구 52(1), 215-245.

구본관. 2022. 국어의 수 관련어와 문법화. 우리말연구 70, 5-34.

구종남. 2008. 담화표지 '다'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67, 37-59.

구종남. 2016. 인용표지의 연결어미적 기능. 국어문학 63, 71-101.

구종남. 2017. 인용접속문의 축약 현상 연구. 국어문학 66, 125-154.

구종남. 2019. 융합형 종결어미 '-다니까'의 의미와 문법화. 한민족어문학 85, 81-115.

구종남. 2020. 종결어미 '-다면서'의 문법화와 의미 해석. 국어문학 75, 1-26.

구현정. 2008. "아니,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부정 표현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15(3), 1-27.

구현정. 2009a. 국어 표준 화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 경어법의 표준 화법 실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15, 9-36.

구현정. 2009b. 언어 속의 신체: 한국어 '머리'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46, 1-28.

구현정. 2010. 패러다임과 패러다임의 결합: 조건표지 확대 현상의 문법화적 접근. 한글 287, 45-71.

구현정. 2012. '-기는' 구문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19(3), 1-28.

구현정. 2015a. 가정적 인용표지의 담화 전략 연구. 담화와 인지 22(2), 1-27.

구현정. 2015b. 광복후 구어 표현 변화의 경향성. 한글 310, 261-285.

구현정. 2016. 대중매체로 본 광복 70년 부부 호칭 변화. 한국어 의미학 51, 85-110.

구현정. 2018.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의 동향과 전망. 신용권 외. 2018. 한국어 연구의 새로운 흐름. 221-255. 서울: 박이정.

구현정. 2020. 의존명사 종결 구성에 반영된 잠정 문법의 양상. 한말연구 58, 5-34.

권익수. 2013.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재고찰: 정경숙(2012)에 대한 다른 생각. 언어 38, 53-66.

김건희. 2009. '밖에'의 의미와 형태 - 문법화 현상을 중심으로 -. 어문학 104, 103-140.

김건희. 2015. 인용절에 대한 재고찰 - 내포절 체계 내의 다른 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글 307, 125-169.

김건희. 2017. 부사 '여간'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45, 5-35.

김경희, 이성하. 2018. 스페인어 전치사의 문법화. 언어와 언어학 81, 21-50.

김고은. 2015. 보조용언 '쌓다'의 문법화 정도의 방언 분화. 관악어문연구 40, 65-86.

김교연. 2022. '거리다'의 역문법화. 언어사실과 관점 55, 545-577.

김귀화. 2014. 담화표지 '좀'의 담화전략에 관한 연구. 중국조선어문 6, 19-23.

김문기. 2007a, 한국어 매인풀이씨 연구. 박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김문기. 2007b, 매인풀이씨의 문법화 양상. 우리말연구 20, 203-225.

김문기. 2008. 매인풀이씨 '가다'와 '오다'의 인지적 해석. 우리말연구 22, 1-27.

김미경. 2020, 하향이동 동사 '디다'의 문법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미경. 2023. '되다'의 의미 확장 경로 연구. 한국어 의미학 82, 143-178.

김미선. 2012. '그런데'의 담화 기능 연구. 인문과학연구 34, 35-54.

김민국. 2011.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73-106.

김민국. 2019. 한국어 비주격 주어 표지의 문법화 - 존재 구문 및 탈격을 기원으로 하는 형식을 중심으로 -. 배달말 65, 1-48.

김병건. 2011. 국어 의향법 씨끝 변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김선영. 2016. 형용사와 '-어가다'. 한글 311, 165-196.

김선혜. 2019.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에 대한 재고. 한글 80(3), 501-529.

김선혜. 2020. 말뭉치에 나타난 보조용언의 연쇄 양상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51, 299-329.

김선혜. 2021. '-ㄴ/ㄹ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에 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91, 9-34.

김선혜, 남신혜. 2022. '-다고' 구문에 대한 말뭉치 기반 연구. 우리말연구 71, 115-147.

김성옥. 2020. '조차·보다'에 관한 16~20세기 한글편지에서의 문법화 연구. 어문연구 104, 5-31.

김세환. 2012. 청송지역어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아림. 2018. 한국어 구어 비격식체 3인칭 대명사 '얘/걔/쟤'. 언어와 언어학 80, 1-40.

김영선, 박주형, 임종수. 2015. 신어의 인칭 접미사 연구. 동남어문논집 39, 5-33.

김영철. 2007. 우리말 담화표지 '참' 고찰. 국어문학 43, 235-252.

김영철. 2008. 우리말 담화표지 '자' 고찰. 국어문학 45(1), 5-23.

김영철. 2015. 우리말 담화표지 '인자' 고찰. 국어문학 58, 29-48.

김옥영. 2014. 강릉방언의 '-잔쏘'류 복합 종결어미 연구, 서강인문논총 40, 141-171.

김용선. 2010. 현대국어의 신어형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김용하. 2023. 위험한 문법화: 이른바 종결어미 융합형 어미의 문제. 언어학 97, 199-219.

김윤신. 2008. 상 보조 용언 구성 '-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52, 57-78.

김인균. 2015. '(이)서' 문법. 반교어문연구 40, 183-206.

김재욱, 박동화. 2017. 한국어교육을 위한 종결어미 '-거든'과 '-잖아'의 문법화 대조.

2017년 봄 사회언어학회, 담화인지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1-90.
김정남. 2017. 조사 없이 사용되는 한국어 명사류에 대하여 - 한국어 교육 내용에 대한 제안을 겸하여. 어문논집 72, 7-33.
김정민. 2012. 한일 문말형식의 증거성과 의외성 기능 - '것이다'와 ''のだ'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6, 27-48.
김종록. 2004. 선어말어미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표제어 분석. 어문학 84, 39-73.
김종록. 2007a. 선어말어미 '-는-, -느-'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95, 23-54.
김종록. 2007b. 선어말어미 '-리-'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분석. 어문학 98, 23-93.
김종록. 2008. 보조사 '-는'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어문학 102, 67-87.
김종록. 2010.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의 사전 표제어. 국어교육연구 46, 161-184.
김준기. 2009. 특수조사 {나}에 대하여. 어문학 105, 25-48.
김준기. 2010. 연결어미 '-다가'의 의미에 대하여. 어문학 108, 1-26.
김지은. 2013. '만큼'의 문법적 갈래와 용법 - '관형사형 어미 + 만큼'의 용법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50, 303-326.
김진우, 정은진. 2022. <속미인곡> 제48행 해석의 재론 - '커니와(ᄏᆞ니와)'의 시대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9, 187-219.
김태우. 2016. 역문법화에 대하여 - 문법화의 비교와 그 기제를 중심으로 -. 국어학 80, 293-323.
김태우. 2018. {-습-}의 기능 변화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태인. 2019. '-다시피'의 의미·기능에 관한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38, 1-34.
김태호, 정선영. 2012. 한국어에 나타나는 '진실' 표현 어휘의 담화표지 기능 연구. 비교문화연구 29, 453-477.
김현주. 2007. 전기 근대국어 {-습-}의 이형태 분포와 빈도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한국어학 35, 243-274.
김현주. 2010. 국어 대우법 어미의 형태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김현주. 2014. 선어말어미 {-습-}의 연구 성과와 쟁점. 국어사연구 19, 65-99.
김현주. 2015. '-이서'의 기원에 대한 일고찰. 아시아문화연구 37, 61-81.

김현지. 2015. 한국어 구어에서 '정말?', '진짜?'의 담화 기능 연구. 언어와 언어학 66, 79-112.

김현지. 2017. 한국어 구어 담화에서 맞장구 표현 '맞아', '그래', '그렇지'의 사용 양상 연구. 언어와 언어학 75, 33-60.

김혜지. 2016. 연결어미 '-니까'의 종결어미화에 대한 연구. 이화어문논집 40, 79-99.

김효신. 2020. 한국어 연속상 보조용언 구성의 통시적 연구 - 문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효진. 2017.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 'V-어 가다/오다', 'V-어 주다'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나희숙. 2014. 한일 양국어 성서의 대우표현 변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남기탁, 조재형. 2014. 후기중세국어시기의 '-에셔'의 形成 過程에 대한 考察. 어문논집 58, 7-29.

남미정. 2016. 중세·근대국어 보조사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3, 33-70.

남신혜, 김선혜. 2019. '갖다가'의 문법화. 한국사전학 34, 38-63.

노명희. 2013. 접미사 부류의 탈문법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35, 129-163.

노창화. 2013. 한국어 동사 연속체 연구 - [V-어 V] 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도재학. 2018. 두려움의 개념과 경계 형식의 문법 - 한국어 어미 '-을라', '-을세라'를 중심으로. 국어학 88, 201-232.

류성기. 2016. 경남 하동 방언의 문법 형태와 세대 및 의식 변화에 따른 문법 형태 사용 변화 연구. 국제언어문학 33, 1-37.

목지선. 2012. 계기의 접속어미 '-고'와 '-아서'의 의미·통사상 차이 - 부정 표현과의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16, 51-80.

목지선. 2013. 어미 '-으려고'의 통사·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어문학 122, 41-67.

목지선. 2015. 어미 '-으러'의 통사·의미적 특징 - 수사의문문 용법을 중심으로 -. 언어과학연구 72, 171-194.

목지선. 2018. 국어 입말의 비격식체 종결어미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목지선. 2023. '대신'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64, 1-24.

문병열. 2015a. 한국어 조사 상당 구성에 대한 연구 - [조사+용언 활용형]의 경우. 박사

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문병열. 2015b. 한국어의 역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75, 295-329.

문창학. 2017. 文法化形式の否定疑問文に関する日韓対照研究 —形式的特徴と統語的特徴を中心に— (문법화 형식의 부정의문문에 관한 일한대조연구). 일어일문학연구 100, 105-126.

민경모. 2007. 한국어 지시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박강훈. 2016. 한일 양 언어의 언어접촉에 의한 언어변화 - 문법화 이론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58, 43-61.

박강훈. 2022. 한일부정극어 전혀전연, 韓日両言語の否定極性表現「전혀」と「全然」の文法化. 일본어문학 94, 79-100.

박강훈. 2023. 긍정과 호응하는 부정부사의 문법화 - 「전혀全然」과 「결코決して」의 대조연구 -. 일어일문학연구 126, 63-83.

박경은, 이성하. 2018. 한국어와 태국어의 부치사 문법화에 대한 비교 고찰 - 거시적 유형론적 관점에서. 언어과학연구 86, 69-95.

박근배. 2013. 경남방언 '가지-'의 문법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박나리. 2012. '-는 것이다' 구문 연구 - 문법기능과 담화기능 그리고 화자의 담화전략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국어학 65, 251-279.

박동근. 2015. 한국어 의성어와 의태어의 음운 비교. 한말연구 37, 177-203.

박석준. 2007. 담화표지화의 정도성에 대한 한 논의 - '뭐, 어디, 왜'를 대상으로 -. 한말연구 21, 87-106.

박선자. 2008. '-이, 이, 이-'의 범주 의미론적 상관성. 한국어 의미학 27, 75-102.

박신명, 이혁화. 2013. 경상방언의 어미 '-구로'에 대하여. 어문학 122, 69-93.

박용찬. 2014a, 중세국어의 '다가'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38, 227-275.

박용찬. 2014b. 중세국어 '다가'와 '-어 다가'의 문법화 -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와 『노걸대언해』, 『박통사언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5, 175-209.

박종호. 2015.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다가'의 특성과 기술 방안 연구. 우리말글 66, 63-95.

박주원. 2020. 한국어 비종결 문말 형식의 탈종속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박진호. 2015. 언어에서의 전염 현상. 언어 40(4), 619-632.

박진호. 2016. 속격에서 주격으로. 2016년 한국언어유형론학회, 한국사전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81-94.

박형진. 2022. '-다는 NP' 구성의 출현 과정과 변화에 대한 고찰. 영주어문 52, 71-101.

박호관. 2014. 연결어미 '-(으)면서' 구문의 사상과 의미망. 우리말글 67, 1-27.

배수자. 2017.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창원대학교.

백낙천. 2007. 국어 문법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39, 309-328.

백낙천. 2009. 국어의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 39, 241-257.

백낙천. 2012. 국어 문법화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39, 309-328.

백채원. 2017. 한국어 피동문의 역사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백채원. 2021. 접미사 '-껏'의 형성과 확장에 대한 연구. 구결연구 46, 165-196.

서정호. 2019 15세기 의존명사의 형태와 분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서태길. 2009. 보조사 '말고', '치고'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45, 255-274.

서형국. 2012. 한자 어근 '순(純)'의 단어화와 화용화 - 단음절 한자 어근의 어휘사 -. 한국어학 55, 139-172.

석주연. 2008. 국어 형태의 통시적 변화와 문맥 - 문맥에 수반된 의미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26, 257-281.

손달임. 2012. 현대국어 의성의태어의 형태와 음운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손뢰. 2015. 현대한국어 비통사적 합성어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손세모돌. 2017. 중세·근대국어 보조용언 연구의 쟁점과 과제. 국어사연구 25, 7-57.

손옥현, 김영주. 2009.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28, 49-71.

손욱. 2023. 한국어 '것' 구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손춘섭. 2014. 국어 어원별 접사화에 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45, 31-67.

손평효. 2014. '개-'의 생산성과 범주 설정의 문제 - 신어 '개+X' 유형을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39, 85-116.

손평효. 2017. '밖에'의 어휘화, 문법화 연구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49, 63-89.

손평효. 2019. 위치 공간말의 문법화 연구. 우리말연구 57, 63-94.

손혜옥. 2012. '가지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공시적 분석. 한국어학 55, 207-238.

손호민. 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61-95.

송대헌. 2014.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양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청주대학교.

송대헌. 2015.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은데'의 의미와 담화 기능 연구. 국제어문 66, 167-191.

송대헌, 김희숙. 2014. 한자어 명사 '법'의 문법화 양상 연구. 언어학연구 33, 175-195.

송대헌, 황경수. 2013. 한국어 연결어미 '-니까'의 문법화 연구. 새국어교육 96, 321-343.

송인성. 2015. 국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운율.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송인성, 신지영. 2014. 담화표지 {좀}의 기능과 형태·운율적 특성 실현 양상. 한국어학 62, 315-339.

송재목. 2009. 인식양태와 증거성. 한국어학 44, 27-53.

송재목. 2011. 한국어 증거성표지의 중복실현. 비교문화연구 22, 355-375.

송재목. 2014. 한국어 '증거성' 종결어미 '-네': 정경숙(2007, 2012)에 대한 대답. 언어 39(4), 819-850.

송창선. 2016. 국어 인용표지 '이라고, 고'의 문법적 특성. 어문학 131, 33-54.

시정곤. 2010. 국어 명사의 문법화 과정에 나타난 특이 유형에 대하여. 언어연구 26(1), 105-127.

신은수. 2013. 'X+지다'류 어휘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심란희. 2018.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심지영, 박은석. 2019. 한·중 발화동사 및 관련 표현의 문법화 - '하다'와 '說'을 중심으로 -. 문법교육 37, 59-105.

안신혜. 2013. <석보상절>에서 보이는 의존명사의 문법화. 겨레어문학 50, 129-149.

안신혜. 2014. 의존명사의 어미와 문법화. 겨레어문학 52, 69-92.

안신혜. 2015. 의존명사의 명사성과 '-오-'의 실현 양상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안신혜. 2016. 보조용언의 문법화 양상 - '가다', '오다', '두다', '버리다'를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56, 87-107.

안윤미. 2012. 담화 표지 '그러게'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6, 91-118.

안정아. 2008. 담화 표지 '막'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학 40, 251-279.

안정아. 2010. '형용사+-게도'형의 양태성 고찰. 한국어학 46, 229-251.

안정아, 남경완. 2023. 근대국어학 시기의 보조사 범주 형성 과정 연구. 한국어학 100, 91-120.

안주호. 2007. 연결어미 {-느라고}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97-

안주호. 2010. {-치고}의 문법적 특성에 대한 고찰. 한글 288, 43-72.

안주호. 2011a. 현대국어 {-고}계열 조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 의미학 34, 213-233.

안주호. 2011b. {만큼}의 문법적 특성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78, 39-63.

안주호. 2012. 감탄사 유래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언어과학연구 61, 91-116.

안주호. 2016. 종결어미 '-(으)실게요'의 기능과 문법화. 2016년 담화·인지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3-38.

양언. 2011. '로써'의 문법화에 대한 재론. 한민족어문학 74, 33-58.

양영희. 2016a. 현대 국어 문법화와 역문법화의 비교 고찰. 국어문학 62, 5-28.

양영희. 2016b. 현대국어의 역문법화 양상 고찰. 우리말글 68, 37-61.

양영희. 2016. 현대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유형 고찰. 용봉인문논총 48, 129-155.

양재영. 2022. 조사 '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해석 - 의문첨사설과 일본어 차용설의 비판적 종합 -. 언어학 93, 55-84.

양지현. 2015. '하-' 축약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양지현, 황병순. 2016, 중세어 '지-' 구성의 현대어 수용 양상에 대해. 언어과학연구 79, 229-249.

양해승. 2014. 20세기 초기 한국어 대우법 연구사 - 『역대한국문법대계』에 나타난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63, 131-174.

여나. 2015. 문법화로 본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예선희. 2012. '좇다(follow)'를 어원으로 하는 용언과 보조사의 의미분화, 의미확장 및 의미오류 분석. 신영어영문학 51, 241-256.

예선희. 2015. 우리말 '격조사+다가' 구문의 문법화. 현대문법연구 86, 31-46.

오규환. 2008. '같-'의 활용형의 문법화와 관련된 몇 문제. 형태론 10(2), 353-372.

오규환. 2016. 한국어 어휘 단위의 형성과 변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오윤지, 김혜경. 2023. 한중 미래 의미 표지법 대조 연구 - 미래문법형태 '-겠-'과 '요'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7, 119-148.

오은화. 2020. 담화표지 '아니'의 한국어 교육용 의미 기능 선정 연구 -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 새국어교육 125, 237-266.

오효정, 김종혁. 2021. 트위터에 나타난 접두어 '개-'의 사용 양상. 언어학 29(1), 1-23.
왕방. 2009. 한국어 접두사 의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상지대학교.
왕비비. 2017. 한국어 부사 유의어의 통시적 연구 - 시간부사, 정도부사, 성상부사, 양태부사를 대상으로 -. 박사학위 논문, 충북대학교.
유경화(Qing-hua Liu). 2014. 한국어 복합 격조사에 대하여. 어문학 124, 39-66.
유세진. 2014. 충남방언 '가다'의 문법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유승국. 2014. 통사적 구성 부사(어)구와 문법화에 대하여. 어문논집 59, 41-63.
유초희. 2016. '무섭다'류 심리형용사에 대한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윤보영, 김인균. 2012. '븥- + -어'의 문법화에 대한 고찰. 동남어문논집 33, 5-24.
윤보영, 김인균. 2013. 'ㅋ장'의 변화 양상 연구. 우리말연구 32, 63-88.
윤보영, 김인균. 2016. 조사 '조차'에 대한 통시적 접근. 우리말연구 44, 173-193.
윤재학, 김기국. 2022. 비표준 종결어미 '-을까요?'와 '-실게요' 분석. 언어학 30(4), 63-84.
윤현미. 2013. 日韓授受表現の対照研究 -「やる」と「주다」の非恩恵用法への 文法化を中心に-. 일본어교육연구 25, 223-243.
윤혜영. 2008. 17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윤혜영. 2011. 『여사서 언해』에 나타난 인용구조 연구. 어문학 112, 49-78.
윤혜영. 2016. '뜻풀이대상 형식인용' 구조를 기반으로 한 도움토씨 '-이란'의 문법화 과정 고찰 - 20세기 초중반까지의 문헌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39, 203-228.
이강호. 2015. 직시동사 deixis-verb의 문법화 - 독일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직시동사'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62, 157-190.
이광호. 2007.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에 대한 계량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이광호. 2015. 처소 기원 여격조사의 형태와 의미. 어문연구 86, 37-56.
이광호. 2023. 'ㅁ춤내'와 'ㅁ츠매'의 의미와 표기. 국어교육연구 81, 167-190.
이금영. 2015. '-니' 통합형 어미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 85, 25-52.
이금영. 2016.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고찰. 인문학연구 103, 215-246.
이금희. 2007. 연결 표현 '-는 바람에, -는 통에, -는 김에, -는 탓에'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8(2), 243-266.
이금희. 2012. 의존명사의 문법화 정도와 양태적인 의미 - '-기 마련이다, -는 법이다,

-기 십상이다, -기 일쑤이다'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40(3), 57-89.

이금희. 2013. 종결어미 '-(으)ㄴ걸', '-는걸'과 '-(으)ㄹ걸'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 특성. 한국어의미학 42, 111-139.

이금희. 2014. 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화용적 조건과 의미. 어문논집 42(4), 59-86.

이금희. 2016. 국어 어미 '-ㄴ지'의 문법화와 통사적·의미적 특징. 한민족어문학 73, 35-66.

이금희. 2017. 한국어에 나타나는 문법화와 어휘화 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81, 91-114.

이금희. 2019. 가정과 양보를 나타내는 보조용언 '보다' 구성에 대한 연구 - '-어 봐(라), -어 봤자' 중심으로. 어문연구 47(3), 63-90.

이금희. 2020. 한국어 동사의 문법화에 대하여 - 조사화와 어미화를 함께 일으키는 동사 중심으로 -. 담화와 인지 27(1), 209-227.

이기갑. 2009. 동남 방언의 담화표지 '고마'. 우리말연구 25, 1-37.

이기갑. 2010. 담화표지 '그냥', '그저', '그만'의 방언 분화. 방언학 11, 5-35.

이기갑. 2016. 응답어의 문법화 - 전남방언의 화용 첨사 '에, 야, 어이, 웨' -. 방언학 24, 293-320.

이기문. 2008. 한국어 어원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7(1), 49-97.

이동석. 2014. 중세국어 '거긔' 구성의 의미 기능과 문법화. 국어사연구 19, 171-201.

이병기. 2014. 명사와 국어사. 한국어학 62, 27-58.

이병기. 2017. 중세·근대 '뜨리다' 보조용언 연구의 쟁점과 전망. 국어사연구 25, 59-94.

이상신. 2014.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과 방언형. 인문연구 71, 105-132.

이선웅. 2007. 국어 지칭어·호칭어의 명사구 형성 문법. 우리말글 40, 123-145.

이선희, 신지언. 2017. 한국어 '개'와 중국어 '狗'의 의미 확장 소고. 한중인문학연구 57, 171-190.

이성우. 2015. 언간 자료에 나타난 조사 '-하고'의 문법형태화와 사용 양상. 국어사연구 20, 427-462.

이성우. 2021. '보고'의 문법화와 '더러'와의 층위화. 한국언어문화 76, 371-397.

이성하. 2008. 문법화 연구에서의 구어의 의의. 언어과학연구 47, 209-235.

이성하. 2016. 문법화의 이해. 개정판. 한국문화사.

이소흔. 2017.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이숙. 2011. 서술종결형어미 '-단다'의 형성과 의미기능 분석. 우리어문연구 39, 209-239.

이숙. 2012. 현대국어 '-단다' 구문의 문법화 동기에 대한 고찰. 영주어문 23, 161-184.

이숙의. 2013. 현대국어 의존명사의 탈문법화. 어문연구 76, 5-36.

이승연. 2010. 특수조사 '-(이)나마'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학 49, 293-317.

이영제. 2014a. 한국어 기능명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이영제. 2014b. 공간명사의 의존 용법과 규정 기능 - 양식적 공간명사를 중심으로 -. 어문논집 58, 31-52.

이유기. 2012. 서술문 종결형식의 변천 과정. 국어사연구 14, 29-62.

이의종. 2022. 한국어 '-지(요)', '-잖아(요)'의 조건 표지 용법과 그 기능의 획득. 인문과학연구 45, 1-32.

이정민(Lee, C.). 2016. 자아 표현: 심리술어와 증거성의 문제.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5(2), 1-37.

이정민. 2020. '들이-+X'의 범주 분화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60, 89-113.

이정민. 2023. 인수칭의 '-서'를 다시 찾아 - 동작성(과 '함께')의 뜻. 형태론 25(2), 243-248.

이정화. 2009. 한국어 직시적 이동사건의 의미에 대한 말뭉치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177-199.

이주행. 2009. 한국어 의존명사 연구. 한국문화사.

이주현. 2021. 근대 국어 언간의 인용구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이지영. 2007. 연결어미 '-지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재고찰. 대동문화연구 57, 319-351.

이지은. 2023. 유사성에 기반한 의미 확장에 대한 일고찰 - '-며/면서'와 '-다고' 구문을 중심으로 -. 언어학 96, 227-253.

이태영. 2000. '與'의 번역과 관련된 문법화 연구. 언어 25(3), 477-497.

이태환. 2008. 한국어 경어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경원대학교.

이한규. 2011. 한국어 담화표지어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171-197.

이한규. 2012. 한국어 담화표지어 '아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7, 145-171.

이한민, 조은영. 2015. 반말체 어미 '-게'의 의미기능 연구. 국어학 74, 303-337.

이혁화. 2015. 경상방언의 조사 '카마'에 대하여. 어문학 130, 63-84.

이현희. 2009. '조초'의 문법사. 진단학보 107, 129-173.

이현희. 2010. '채'와 '째'의 통시적 문법. 규장각 36, 73-133.

이현희. 2017. '-ㄹ거'의 문법화에 대한 가능성 고찰. 한글 318, 85-117.

이회환. 2015. '관형형 어미+의존명사 구문'의 어미화 연구. 언어과학연구 75, 251-264.

이효윤. 2019. 한국어 부사의 변천 연구-15세기 이후 자료를 대상으로-.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이희자, 이종희 2010. 어미 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임규홍. 2008. 경상방언 종결형 어미 '-ㄴ기라'에 대한 연구. 배달말 42, 1-29.

임규홍. 2009, 경상방언 담화표지 '아이가'에 대한 연구. 어문학 104, 141-177.

임규홍. 2011. 경상방언 담화표지 '마'에 대한 연구. 배달말 48, 1-33.

임근석. 2008. 문법적 연어와 문법화의 관계. 국어학 51, 115-147.

임근석. 2016. 타동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을/를, -에 대해, -을/를 가지고' 비교 연구. 언어학 75, 113-143.

임동훈. 2010. 현대국어 어미 'ㄴ'의 범주와 변화. 국어학 59, 3-44.

임병민. 2009. 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임지룡. 2014. '착하다'의 의미 확장과 의의. 언어 39(4), 971-996.

임지룡. 2016. 신체어의 의미 확장 양상과 해석. 배달말 59, 1-42.

장경현. 2019. 신조어 접사의 형태·의미 특성 연구.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30(1), 311-336.

장요한. 2009. 15세기 굴어 접속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장요한. 2010. 중세국어 조사 '-ᄃᆞ려', '-더브러', 'ᄋᆡ/ㅅ손ᄃᆡ'의 문법. 한민족어문학 56, 5-42.

장요한. 2013. 국어 접속어미의 통시적 연구 - '커니와'와 '-다니'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 어문학 119, 1-26.

장윤희. 2010. 중세국어 연결어미 형성의 문법사 - '-오ᄃᆡ, -은ᄃᆡ, -은대'를 중심으로 -. 어문연구 38(2), 61-90.

장윤희. 2012.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쟁점. 국어사연구 14, 63-99.

전기량. 2018. 중세 한국어 '-여' 구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전민경. 2023. 현대 국어 접사와 접사 결합 단어 연구. 언어와 정보 사회 50, 63-96.

전영옥. 2017.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말연구 45, 127-160.

전후민. 2014. {다가}의 변천사. 우리말글 63, 29-68.

전후민. 2015. 혼잣말 종결어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0, 5-34.

전휘(Tian, Hui). 2021. 의향어미 '-단다'의 형성과 인식 양태. 한글 82(1), 87-118.

전휘(Tian, Hui). 2022. 문법화론에 기반한 현대 한국어 융합형 종결어미 형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정경미. 2016. 한국어 추론 증거성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정경숙. 2012. 한국어 종결어미 '-네'의 의미: 증거성 및 의외성과 관련해서. 언어 37, 995-1016.

정경숙. 2014. 종결어미 '-네'와 단언화행. 언어 39(3), 617-640.

정담. 2021. '-(으)ㅁ직하-' 구성의 통시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정담. 2022. '-(으)ㅁ직하-' 구성의 문법화 과정과 '-직하-' 구성의 연관성 연구. 어문론총 91, 73-95.

정동경. 2013.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정수진. 2012 연결어미 '-어서'의 의미 확장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50, 405-428.

정언학. 2007.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와 역사적 변화. 한국어학 35, 121-165.

정연희. 2012. 한국어 가치 표현 '-을 만하다'의 문법화 연구. 언어와 언어학 55, 263-286.

정연희. 2017. 한국어 보조동사 구성 '-어 보다'의 의미 변화와 문법화. 담화와 인지 24(3), 53-75.

정연희. 2018. 한국어 이동 동사 '따르다'의 의미 변화와 문법화 - '따르다'에서 '따라'까지 -. 언어와 언어학 81, 149-168.

정인아. 2010. 한국어의 증거성(Evidentiality) 범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상명대학교.

정한데로. 2012. 어휘 변화의 세 방향 - '보-'를 중심으로. 형태론 14(1), 25-52.

정혜선. 2010a. '-고져'의 문법 기능 변화와 해석. 형태론 12(1), 75-90.

정혜선. 2010b. ‘싶다’ 구문의 역사적 변화. 어문연구 38(2), 69-191.

정혜선. 2013. 국어 인식 양태 형식의 역사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정혜선. 2017. 종결어미 ‘-ㄴ걸’, ‘-ㄹ걸’의 형성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32, 241-265.

정혜선. 2023, ‘-은가’의 연결어미 용법에 대한 역사적 연구. 어문연구 199, 5-30.

정혜인. 2017. 현대중국어 ‘一旦’과 한국어 ‘일단’의 의미 대조. 중국어 교육과 연구 26, 273-288.

정희창. 2010. ‘아니요, 아니에요’의 경어법과 문법적 특징. 어문연구 38(4), 113-127.

조경순. 2015. 국어 보조동사의 의미 구조와 문법화 - ‘가지다’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64, 27-55.

조경화. 2018. 독일어와 한국어의 부치사에 대한 언어유형론적 연구. 독어교육 71, 89-112.

조미희. 2013. 국어 보조동사 의미의 주관화 - ‘-어 놓다, -어 두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쌍을 중심으로. 형태론 15(1), 35-54.

조미희. 2016. 국어의 주관화 과정과 문법화의 범위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73, 67-92.

조민정. 2015. 문법화에 따른 ‘막’의 기능 및 의미 변화 연구. 한국사전학 26, 177-214.

조민하. 2011. 연결어미의 종결기능과 억양의 역할.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조민하. 2021. ‘-ㄴ거야’의 문법화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 20대 구어 음성자료의 억양 분석을 통하여 -. 우리어문연구 70, 185-220.

조영헌. 2010. 중세국어 복합조사 ‘엣’의 형성 과정에 대한 고찰 - ‘ㅅ’의 문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우리말 연구 63, 81-107.

조영헌. 2021. 한국어 주격조사 ‘이’의 문법화.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조은영, 이한민. 2011. 반말체 종결어미 '-게'의 문법화와 의미 변화. 한국어 의미학 36, 391-417.

조인정. 2011. 표현 문형 ‘-은/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 한국어교육 22(2), 329-349.

조창규. 2023. 의성어 의태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언어학 13(3), 61-84.

조현용. 2009. 한자어계 귀화어의 유형 연구. 언어연구 26(2), 85-99.

주지연. 2020. 의문문 형성 표지로부터 발달하는 선어말어미 상당구성과 담화표지에 대하여: ‘-다아니-’/‘아이가’(동남방언)와 ‘-지뭐(이)-’/‘뭐’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

보 사회 40, 207-238.
지은영. 2020. '좀'의 기능에 대한 기능화용론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48, 213-234.
진관초(Chen, Kuan Chao). 2018. 한국어 반복 구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진정란. 2005. 한국어 이유 표현 '-길래'의 담화 문법 연구. 담화와 인지 13(2), 137-154.
채숙희. 2010. '이', '그' 계열 지시어의 인용표지적 성격에 대하여 -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 형태론 12(2), 217-239.
채숙희. 2011a.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채숙희. 2011b. 목적의 '-겠다고'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4(3), 205-227.
채숙희. 2015. 인용의 '-대(요)'류의 용법과 분류. 언어학연구 35, 347-366.
채희락. 2007. 접어와 한국어 품사 분류: 품사 재정립 및 띄어쓰기 재고. 언어 32(4), 803-826.
천성호. 2022. 사전 등재 측면에서 본 '말고'의 범주 및 특성. 한국사전학 39, 112-133.
최대희. 2010.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최대희. 2012. '것' 구조의 문법화. 겨레어문학 48, 401-430.
최대희. 2017. 중세국어 어찌말 매인이름씨 연구. 한말연구 45, 227-249.
최동주. 2007. 문법화의 유형과 기제. 민족문화논총 37, 521-550.
최동주. 2009. 종결어미 '-ㄹ걸'의 기능과 문법적 특성. 국어학 54, 225-250.
최영미. 2009. 정선방언의 성조 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최윤. 2016. 조사 '다가'의 문법적 위치 고찰 - 형태적 출현 제약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42, 171-196.
최윤지. 2008. 자립명사로 발달하는 한자어 파생접미사에 대하여. 형태론 10(2), 319-333.
최전승. 2007. 19세기 후기 국어에서 의존명사로의 문법화 과정과 역사적 연속성. 국어문학 43, 55-115.
최정도. 2013. '-ㄴ지'의 문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내포문에서의 쓰임을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33, 5-30.
최진희, 조선영. 2013. 「것이다」の 表現効果に関する一考察 -「のだ」と対照の 観点から-. 일본어학연구 36, 227-240.

최형용. 2017. 명사와 접미사의 용법을 지니는 단위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31, 311-340.

최화니. 2012. '막이래'의 담화 기능 연구 - 트위터(Twitter) 언어를 중심으로 -. 텍스트 언어학 32, 241-264.

카노크완. 2010. [V+ -이, -음, -기]가 포함된 한국어 합성명사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하영우, 신지영. 2012. 자유발화 자료에 나타난 {-어가지고}의 문법 범주와 의미 기능. 한국어학 55, 397-430.

한경숙. 2017. 현대중국어 조사 '중'의 문법화 과정 및 그 기제 중한 대조 분석. 철학·사상·문화 25, 175-199.

한길. 2012. 정도부사 '훨씬', '가장', '더/덜'의 용법. 인문과학연구 35, 183-205.

한길. 2017. 부정문을 가려잡는 '는'결합 부사어 연구. 정신문화연구 40(2), 103-127.

한용운. 2008. 현대국어 조사의 범주 통용 문제. 형태론 10(2), 299-317.

한주희. 2018. 한국어 어휘격, 부사격 조사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 96, 69-88.

함병호. 2013. 보조사 '도' 통합형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60, 107-148.

함희진. 2008. 'V1-어+지다'형 합성동사의 형성과 기원. 한국어학 41, 403-429.

함희진. 2010. 국어 합성동사의 형성과 발달 - 'V1-어+V2'형 합성동사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허웅.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출판사.

허인영. 2023. 탈격에서 유래한 단체주어 표지 '-以[로]'에 대하여. 구결연구 50, 169-203.

허재영. 2007. 한국어 보조사의 문법화 - 개화기 한국어를 중심으로 -. 한민족문화연구 22, 59-79.

허재영. 2008. 높임의 조사 '요'의 문법화 - 생성과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한말연구 23, 473-493.

홍달오. 2014. 접두사의 준부사화 경향에 대한 고찰 - 접두사 '개-'를 중심으로 -. 언어 39(1), 231-249.

홍달오. 2015. 보조동사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분석: '버리다', '치우다', '내다' 구성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22(3), 99-123.

홍성심. 2015. 1-2인칭 재귀사와 3인칭 재귀사의 형태구조적 비대칭성: 문법화의 관점에서. 언어연구 31(1), 179-197.

홍승아. 2023. 의존명사 '터'의 문법화를 통한 의미와 형태 변화 연구. 어문논집 98, 167-186.

홍영주. 2015. 일본어와 한국어의 명사 연어 구성에 대해서 - 결합 관계와 구성 형태를 중심으로 -. 일본문화연구 54, 313-330.

황병순. 2007. 문법화된 주격조사에 내재된 문법 - 주격조사 '-가'를 중심으로 -. 어문학 97, 97-122.

황병순. 2008. 조사의 문법화 양상과 결합 원리. 배달말 43, 1-23.

황병순. 2010. 담화 표지 연구에 드러난 몇 가지 의문. 배달말 47, 115-135.

황병순. 2012. 담화표지의 접속어미화에 대한 연구. 국어학 65, 347-376.

황병순. 2014. 입말에 담긴 부름말 '어이'의 문법화. 언어과학연구 70, 487-510.

황화상. 2013 '-고' 접속 부사구의 한 유형 - '형용사-부사'형 접속 부사구의 성립과 통사구조 -. 한국어학 60, 85-110.

Ahn, Kyou-Dong. 2020. From honor to disparagement: The grammaticalization of *-tapsiko* in Korean. *Journal of Pragmatics* 155, 28-42.

Ahn, Kyou-Dong. 2022. From the incomplete to the complete: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of sentence-final particles in Korean. *Journal of Pragmatics* 201, 160-180.

Ahn, Kyungja. 2009. A discourse-pragmatic study of *com* in Korean. *Language Research* 45(2), 257-281.

Ahn, Mikyung. 2010. From 'favor' to 'cause': The English causal adposition *thanks to* and its Korean counterpart *tekpwuney*. *Language Sciences* 32, 579-587.

Ahn, Mikyung. 2016. Emotion: A diachronic and pragmatic analysis of the sentence-final particle *-tani* in Korean. *Studies in Language* 40(4), 872-893.

Ahn, Mikyung, and Foong Ha Yap. 2013. Negotiating common ground in discourse: A diachronic and discourse analysis of *maliya* in Korean. *Language Sciences* 37, 36-51.

Ahn, Mikyung, and Foong Ha Yap. 2015. Evidentiality in interaction: A pragmatic

analysis of Korean hearsay evidential markers. *Studies in Language* 39(1), 46-84.

Ahn, Mikyung, and Foong Ha Yap. 2020. "That being so, but...": An analysis of Korean *kunyang* as a marker of speaker's attenuated divergent stance. *Journal of Pragmatics* 160, 31-43.

Ahn, Mikyung, and Foong Ha Yap. 2022. On the evolution of a multifunctional discourse marker: A Discourse Grammar analysis of Korean *com. Journal of Pragmatics* 195, 31-47.

Ahn, Mikyung, and Foong Ha Yap. 2023. 'Jackpot!': How social forces intertwine with language-internal mechanisms to turn Korean noun taypak into an interactive. *Lingua* 296, 103609.

Aijmer, Karin. 2013. *Understanding pragmatic markers: A variational pragmatic approach*.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Aikhenvald, Alexandra Y. (ed.) 2018. *The Oxford handbook of evidenti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Akita, Kimi. 2009. A grammar of sound-symbolic words in Japanese: Theoretical approaches to iconic and lexical properties of Japanese mimetics. PhD dissertation, Kobe University.

Akita, Kimi. 2015. The typology of manner expressions: A preliminary look. In Iraide Ibarretxe-Antuñano (ed.), *Motion and space across languages: Theory and applications,* 39-60. John Benjamins.

Akita, Kimi, and Mark Dingamanse. 2019. Ideophones (mimetics, expressives). In Mark Aronoff (ed.),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An, Hyunjung. 2018. Stancetaking in Korean conversation: Using the *maliya* construction to accomplish intersubjectivity. *Japanese/Korean Linguistics* 25, 1-13.

Aranovich, Raúl (ed.). 2007. *Split auxiliary systems*. John Benjamins.

Baldi, Philip, and Pierluigi Cuzzolin (eds.). 2011. *Complex sentences, grammaticalization, typology.* De Gruyter Mouton.

Barnes-Sadler, Simon George. 2016. Central Asian and Yanbian Kore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Available at http://eprints.soas.ac.uk/26672.

Barnes-Sadler, Simon George and Jae Hoon Yeon. 2019. Disapora varieties of Korean: Morpho-syntactic contrasts in Koryo Mar and Vernacular Yanbian Korean. *Lingua* 231, 102742.

Beeching, Kate. 2016. *Pragmatic markers in British English: Meaning in social inter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eching, Kate, and Ulrich Detges. 2014. *Discourse functions at the left and right periphery: Crosslinguistic investigations of language use and language change.* Brill.

Bergqvist, Henrik, and Seppo Kittilä (eds.). 2020. *Evidentiality, egophoricity, and engagement.* Language Science Press.

Bisang, Walter, and Andrej Malchukov (eds.). 2017. *Unity and diversity in grammaticalization scenarios.* Language Science Press.

Brinton, Laurel J. 2008. *The comment clause in English: Syntactic origins and pragmatic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inton, Laurel J. 2017. *The evolution of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Pathways of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own, Lucien, and Jaehoon Yeon (eds.). 2015.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Wiley Blackwell.

Bybee, Joan L. 2015.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retero, Marta, Juana I. Marin-Arrese, Elena Dominguez Romero, and Victoria Martín de la Rosa (eds.). 2023.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Conceptual and descriptive issues.* Peter Lang.

Chae, Hee-Rahk. 2018. The structural ambiguity of the (im)perfective [V-ko is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7, 377-411.

Chae, Hee-Rahk. 2020. *Korean morphosyntax: Focusing on clitics and their roles in syntax.* London: Routledge.

Cho, Sungdai, and John Whitman (eds.) 2022. *The Cambridg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i, Jane Boyun. 2007. A corpus-based discourse analysis of Korean discourse markers: An analysis of spoken and written use. Ph.D. dissertation, UCLA.

Choi, Yoonhee and Chungmin Lee. 2017. Expletive negation and polarity alternatives. *Studies i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1, 175-201.

Chung, Kyung-Sook. 2007. Spatial deictic tense and evidentials in Kore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5, 187-219.

Cornillie, Bert. 2007.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in Spanish (semi-)auxiliaries: A cognitive-functional approach.* Mouton de Gruyter.

Dahl, Östen. 2015. *Grammaticalization in the North: Noun phrase morphosyntax in Scandinavian vernaculars.* Language Science Press.

Davidse, Kristin, Lieven Vandelanotte, and Hubert Cuyckens (eds.). 2010. *Subjectific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grammaticalization.* De Gruyter Mouton.

Degand, Liesbeth, Bert Cornillie, and Paola Pietrandrea (eds.). 2013. *Discourse markers and modal particles: Categorization and description.* John Benjamins.

Devos, Maud, and Jenneke van der Wal (eds.). 2014. *COME and GO off the beaten grammaticalization path.* De Gruyter Mouton.

Diewald, Gabriele, and Elena Smirnova (eds.). 2010. *Linguistic realization of evidentiality in European languages.* De Gruyter Mouton.

Dingamanse, Mark. 2011. *The meaning and use of ideophones in Siwu.*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Dingamanse, Mark. 2012. Advances in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ideophones.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6(10), 654-672.

Dingamanse, Mark. 2015. Ideophones and reduplication: Depiction, descrip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repeated talk in discourse. *Studies in Language* 39(4), 946-970.

Dingamanse, Mark. 2017. Expressiveness and system integration: On the typology of ideophon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iwu. *STUF* 70(2), 363-384.

Dingamanse, Mark. 2018. Redrawing the margins of language: Lessons from research on ideophone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1-30.

Du Bois, John W. 2007. The stance triangle. In Robert Englebretson (ed.), *Stancetaking in discourse: Subjectivity, evaluation, interaction,* 139-182. John Benjamins.

Eom, Sujin, and Seongha Rhee. 2021. The rise and fall of a discourse marker: The case of *kisil* in Korean. *East Asian Pragmatics,* Special issue 6.3: 381-401.

Esseesy, Mohssen. 2010. *Grammaticalization of Arabic prepositions and subordinators: A corpus-based study.* Brill.

Evans, Nicholas. 2007. Insubordination and its uses. In Irina Nikolaeva (ed.), *Finiteness: Theoretical and empirical foundations,* 366-431. Oxford University Press.

Evans, Nicholas and Honoré Watanabe (eds.). 2016. *Insubordination.* John Benjamins.

Fedriani, Chiara and Andrea Sansò (eds.). 2017. *Pragmatic markers, discourse markers and modal particles: New perspectives.* John Benjamins.

Han, Jeonghan. 2010. Interclausal relations hierarchy between semantic and syntactic relations in Korean *V+e+V* constructio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5(4), 1149-1171.

Hancil, Sylvie, and Ekkehard König (eds.) 2014. *Grammaticalization theory and data.* John Benjamins.

Hancil, Sylvie, Tine Breban, and Joé Vicente Lozano (eds.) 2018. *New trends in grammaticalization and language change.* John Benjamins.

Heine, Bernd. 2013. On discourse markers: Grammaticalization, pragmaticalization, or something else? *Linguistics* 51(6), 1205-1247.

Heine, Bernd. 2023. *Grammar of interactives.* Oxford University Press.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ün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ne, Bernd, Gunther Kaltenböck, Tania Kuteva, and Haiping Long. 2021. *The rise of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ne, Bernd, Gunther Kaltenböck, Tania Kuteva, and Haiping Long. 2013. An outline of Discourse Grammar. In Shannon Bischoff and Carmen Jeny (eds.), *Reflections on functionalism in linguistics,* 175-233, De Gruyter Mouton.

Heine, Bernd, and Tania Kuteva. 2007. *The genesis of grammar: A reconstr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Heine, Bernd, and Heiko Narrog (eds.) 2015,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Kaltenböck, Gunther, Bernd Heine, and Tania Kuteva. 2011. On thetical grammar. *Studies in Language* 35(4), 848-893.

Kang, Yunkyoung. 2012. Cognitive linguistics approach to semantics of spatial relations in Korean.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Khammee, Kultida, and Seongha Rhee. 2022. Same and different ways of seeing faces: The cases of Korean and Thai.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103: 361-381.

Kim, Ahrim. 2015. Utterance-final *-ketun* in spoken Korean: A particle for managing information structure in discourse. *Journal of Pragmatics* 88, 27-54.

Kim, Ahrim. 2018. Utterance-final particle *-canha* in modern spoken Korean: A marker of shared knowledge, (im)politeness, theticity and mirativity. *Linguistics* 56(5), 995-1057.

Kim, Ahrim. 2019. From negation to shared knowledge: The evolution of utterance-final *-canha* in spoken Korean. *Journal of Pragmatics* 144, 29-55.

Kim, Alan Hyun-Oak. 2011. Rhetorical questions as catalyst in grammaticalization: Deriving Korean discourse marker *KETUN* from conditional connective. *Journal of Pragmatics* 43, 1023-1041.

Kim, Alan Hyun-Oak. 2014. How adessive becomes nominative in Korean honorifics. *Japanese/Korean Linguistics* 22, 1-16.

Kim, Eunho. 2015. Conversational functions of Korean discourse connective *kulaykaciko*. *Language Research* 51(1), 41-67.

Kim, Eunmi. 2016. Emergence of stance markers from auxiliaries in Korean: Grammaticalization of *tay-* 'touch' and *ssah-* 'pile up'. *Discourse and Cognition* 23(3), 1-19.

Kim, Hi-Sun Helen, and Sang-Seok Yoon. 2009. Grammaticalization of Koran connective *ni & nikka* and the role of *-kka*. *Language Information* 10, 45-71.

Kim, Hyunsu. 2015. Self-voice '-nikka' in the Korean language. *Journal of Pragmatics*

88, 73-87.

Kim, Jiyoung. 2010. The GRZ of Korean sentence ender *-ul key(yo).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13, 337-348.

Kim, Joungmin. 2020. Korean. In Tasaku Tsunoda (ed.), *Mermaid Construction: A compound-predicate construction with biclausal appearance,* 283-331. Mouton de Gruyter.

Kim, Mary Shin, and Jieun Kim. 2011. The Korean adverb *kunyang* in spoken discourse. *Japanese/Korean Linguistics* 20, 1-15.

Kim, Mary Shin, Stephanie Hyeri Kim, and Sung-Ock Sohn. 2021. The Korean discourse particle *ya* across multiple turn positions: An interactional resource for turn-taking and stance-taking. *Journal of Pragmatics* 186, 251-276.

Kim, Mary Shin, Seongha Rhee, and Hye Young Smith. 2021. The Korean discourse particle *kulssey* across discrete positions and contexts in talk-in-interaction. *Journal of Pragmatics* 182, 16-41.

Kim, Minju. 2008a. A corpus-based study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take' into instrumental, sequential, and causal markers in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3(3), 387-420.

Kim, Minju. 2008b. A corpus-based study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the Korean connectives *mye* and *myense*: From simultaneous to quotative to hearsay evidential," *Japanese/Korean Linguistics* 13, 335-345,

Kim, Minju. 2008c. On the semantic derogation of terms for women in Korean, with parallel developments in Chinese and Japanese. *Korean Studies* 32, 148-176.

Kim, Minju. 2010a. On the Two Korean Sequential Connectives *-kose* and *-konase.* In Robert J. Fouser (ed.), *Contemporary Korean Linguistics: International Perspectives,* 149-170. Thayhaksa Publishing.

Kim, Minju. 2010b.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siph-* 'To think' into markers of desire, inference, and similarity," *Journal of Pragmatics* 42(4), 1000-1016.

Kim, Minju. 2011.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suffix *-key. Japanese/Korean Linguistics* 19, 435-448,

Kim, Minju. 2015. From choice to counter-expectation: Semantic-pragmatic connections of the Korean disjunctive, concessive, and scalar focus particle *-na*. *Journal of Pragmatics* 80, 1-21.

Kim, Minju. 2018. From connective to final particle: Korean *tunci* "or" and cross-linguistic comparisons. *Journal of Pragmatics,* 135, 24-38.

Kim, Minju. 2020. From connective construction to final particle: The emergence of the Korean disapproval marker *hakonun*. *Linguistics,* 58(6), 1581-1607.

Kim, Minju. 2021a. The story of two connectives: Korean *tunci* 'or' and *kena* 'or'. *Discourse Studies* 23(4), 497-518.

Kim, Minju. 2021b.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nective *ultheyntey* into a final particle of wishing and worrying. *Journal of Pragmatics*, 173, 51-65.

Kim, Minju. 2022. Intersubjectivity, stance, and Korean general extenders. *Journal of Pragmatics* 193, 253-268.

Kim, Minju. 2023. Semi-honorific, Between honorifics and non-honorifics: A study of the Korean semi-honorific style and a comparison with Japanese. *Discourse Studies* 25(5), 664-691.

Kim, Seo Hyung. 2006. 'Eulan' in Middle Korean. *Korean Linguistics* 33, 185-206.

Kim, Stephanie Hyeri. 2018. Enacting surprise with *ani* 'no'-prefaced questions. *East Asian Pragmatics* 2(2), 141-161.

Kim, Stephanie Hyeri, and Sung-Ock S. Sohn. 2015. Grammar as an emergent response to interactional needs: A study of final *kuntey* 'but' in Korea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83, 73-90.

Kim, Tae Sik. 2016. Bound noun *swu* in Korean, a nominative complex noun phrase or a grammaticalized noun: A reply to Tchoe (2015).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6(4), 407-425.

Kim, Tae Sik. 2017a. Bound noun *man*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7(1), 81-105.

Kim, Tae Sik. 2017b. The relationship between semantic bleaching and syntax: A case from bound noun cwung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7(3),

565-589.

Kim, Tae Sik. 2021. Bound noun *kes* in Korean, revisited.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31(3), 357-379.

Kim, Tae Sik. 2023. Bound noun *pep*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4), 113-136.

Kim, Taeho. 2013. A study of the discourse-functional properties of truth-related expressions in English and Korean. *Linguistic Research* 30(2), 195-215.

Koo, Hyun Jung. 2009. Force dynamics as a variational factor: A case in Korean. *LACUS Forum* 33, 201-210.

Koo, Hyun Jung, and Seongha Rhee. 2013a. On an emerging paradigm of sentence-final particles of discontent: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Language Sciences* 37, 70-89.

Koo, Hyun Jung, and Seongha Rhee. 2013b. "I will do it... but I'm asking you to do it": On the emergence of polite imperative from promissive,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7, 487-494.

Koo, Hyun Jung, and Seongha Rhee. 2016. Pejoratives in Korean. In Rita Finkbeiner, Jörg Meibauer, & Heike Wiese (eds.), *Pejoration,* 301-323. John Benjamins.

Koo, Hyun Jung, and Seongha Rhee. 2018. Systematicity and synesthesia of ideophones in Korean. Paper presented at the Ideophones in the Language Sciences Workshop, the 20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Cape Town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South Africa, July 2-6, 2018.

Koo, Hyun Jung, and Seongha Rhee. 2019. From self-talk to grammar: The emergence of multiple paradigms from self-quoted questions in Korean. *Lingue e Linguaggi* 31, 255-278.

Koo, Hyun Jung, and Seongha Rhee. 2023. Repetitive constructions and stance-marking: The case in Korean. In Alessandra Barotto and Simone Mattiola (eds.), *Discourse phenomena in typological perspective,* 201-227. John Benjamins.

Kranich, Svenja. 2010. *The progressive in Modern English: A corpus-based study of grammaticalization and related changes.* Brill.

Kuteva, Tania. 2009. Grammatical categories and linguistic theory: elaborateness in grammar. In Peter K. Austin, Oliver Bond, Monik Charette, David Nathan, and Peter Sells (eds).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Language Documentation and Linguistic Theory, November 2009. SOAS, London, 13-28.

Kuteva, Tania, Peter Austin, Marine Vuillermet, and Domenico Niclot. 2015. Insubordination and incoordination as steps towards grammatic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Grammaticalization: Newly Identified Paths of Grammaticalization in Meso- and South American Languages. Radboud Universiteit Nijmegen, the Netherlands.

Kuteva, Tania, Bernd Heine, Bo Hong, Haiping Long, Heiko Narrog and Seongha Rhee. 2019.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Kuteva, Tania, Seongha Rhee, Debra Ziegeler, and Jessica Sabban. 2018. On sentence-final "what" in Singlish: Are you the Queen of England, or what? *Journal of Language Contact* 11, 32-70.

Kwon, Iksoo. 2012a. Licensing multiple sources of information: Korean evidentiality as a three term system.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14, 365-380.

Kwon, Iksoo. 2012b. Viewpoints in the Korean verbal complex: Evidence, perception, assessment, and tim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Kwon, Iksoo. 2012c. Please confirm what I inferred: On the Korean inferential-evidential marker *-napo-*. *Journal of Pragmatics* 44, 958-969.

Kwon, Kyongjoon. 2018. A bias-driven modal development of evidentiality: The Korean inferential evidential *-po*.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27, 311-346.

Kwon, Na Hyun. 2018. Iconicity correlated with vowel harmony in Korean ideophon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Laboratory Phonology* 9(1), 1-18.

Lansari, Laure. 2020. *A contrastive view of discourse markers: Discourse markers of saying in English and French.* Palgrave Macmillan.

Lee, Heeju, and Sung-Ock S. Sohn. 2022. From interrogative to disaffiliative stance marker: An analysis of *mwusun* 'what' in Korea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98, 73-92.

Lee, Hyun Sook. 2013. Displacement verbs and speaker-stance indication. *Studies in Modern Grammar* 71, 75-94.

Lee, Hyun Sook. 2020. Grammaticalization of topic-indicating postpositions *tayhay* and *kwanhay*. *Language and Linguistics* 88, 181-206.

Lee, Chungmin. 2021. Definiteness, specificity, and genericity in numeral classifier languages. In Chungmin Lee, Young-Wha Kim, and Byeong-Uk Yi (eds.) *Numeral classifiers and classifier language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121-136. Routledge.

Lee, Chungmin, and Jinho Park (eds.). 2020. *Evidentials and modals.* CRiSPI Series, Brill.

Lee, Chungmin, Young-Wha Kim, Byeong-Uk (eds.) *Numeral Classifiers and Classifier Languages: Chinese, Japanese, and Korean.* Routledge.

López-Couso, María José, Elena Seoane, and Teresa Fanego (eds.), 2008. *Rethinking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Marín-Arrese, Juana I., Marta Carretero, Jorge Arús Hita, and Johan van der Auwera (eds.). 2014. *English modality: Core, periphery and evidentiality*. De Gruyter Mouton.

Marín-Arrese, Juana I., Gerda Haßler, Marta Carretero (eds.). 2017. *Evidentiality revisited.* John Benjamins.

Maschler, Yael. 2009. *Metalanguage in interaction: Hebrew discourse markers.* John Benjamins.

Narrog, Heiko and Bernd Heine (eds.). 2011.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arrog, Heiko and Bernd Heine (eds.). 2018. *Grammaticalizatio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Narrog, Heiko and Bernd Heine. 2021. *Grammatic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arrog, Heiko and Seongha Rhee. 2013. Grammaticalization of space in Korean and Japanese. In Martine Robbeets and Hubert Cuyckens (eds.) *Shared grammaticalization*

with special focus on the Transeurasian languages, 287-315, John Benjamins.

Narrog, Heiko, Seongha Rhee, and John Whitman. 2018. Grammaticalization in Japanese and Korean. In Heiko Narrog and Bernd Heine (eds.), *Grammaticalizatio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166-188. Oxford University Press.

Nieuwenhuijsen, Dorien and Mar Garachana (eds.). 2019. *Studies in historical linguistics and language change: Grammaticalization, refunctionalization and beyond.* MDPI AG.

Nyan, Thanh. 2016. *Context construction as mediated by discourse markers: An adaptive approach.* Brill.

Park, Chongwon, and Sook-kyung Lee. 2009. The evolution of Korean dative markers: Its formal and cognitive motivations. *Linguistic Research* 45(2), 283-318.

Park, Jae-Ick. 2010. Lexical change in Korean food name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13, 365-372.

Park, Jiyeon. 2018. Semantic specificity and syntactic realization of Japanese and Korean ideophones. *Japanese/Korean Linguistics* 25, 1-13.

Park, Jiyeon. 2020. Morphophonologial fixability, morphosyntactic integration, and semantic compositionality. *Japanese/Korean Linguistics* 26, 1-11.

Park, Jiyeon. 2022. The phonosemantics of the Korean monosyllabic ideophone *ttak.* In Sara Lenninger, Olga Fischer, Christina Ljungberg, and Elzbieta Tabakowska (eds.), *Iconicity in cognition and across semiotic sytems,* 369-388. John Benjamins.

Park, KangHun. 2013. Two type of Korean and Japanese multiple negative sensitive item constructions. *Language and Linguistics* 59, 43-72.

Park, KangHun. 2014. A contrastive study of Japanese and Korean negative sensitive items: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Language Sciences* 45, 152-172.

Pons Bordería, Salvador, and Óscar Loureda Lamas (eds.) 2018. *Beyond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markers: New issues in the study of language change.* Brill.

Reinöhl, Uta. 2016. *Grammaticalization and the rise of configuratinality in Indo-Aryan.* Oxford University Press.

Rhee, Seongha. 2007a. Different faces of equality: Grammaticalization of equative

comparatives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15, 149-160

Rhee, Seongha. 2007b. Bare direct quotation and speaker's stance i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43, 189-211.

Rhee, Seongha. 2008a. From rhetoric to grammar: Grammaticalization of rhetorical strategies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13, 359-370.

Rhee, Seongha. 2008b. At the borderland of lexis and grammar: Grammaticalizing perfective markers in Korean. *Discourse and Grammar* 15(3), 29-59.

Rhee, Seongha. 2009a. Through a borrowed mouth: Reported speech and subjectification in Korean. *LACUS Forum* 34, 201-210

Rhee, Seongha. 2009b. Attribution of human qualities to non-humans: A look into human construal of events, *Studies in Modern Grammar* 56, 123-148

Rhee, Seongha. 2009c. Thoughts on semantic change mechanisms in grammaticalization.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51, 175-204

Rhee, Seongha. 2010a. Many uses of one place: Grammaticalization of *han-tey* 'one place', *Japanese/Korean Linguistics* 17, 581-593.

Rhee, Seongha. 2010b.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Studies in Modern Grammar* 61, 249-274

Rhee, Seongha. 2011a. Nominalization and stance marking in Korean. In Foong Ha Yap and Janick Wrona (eds.),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Diachronic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393-422. John Benjamins.

Rhee, Seongha. 2011b.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In Bernd Heine and Heiko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grammaticalization,* 764-774. Oxford University Press.

Rhee, Seongha. 2011c. On terminology issues in grammaticalization studies. *Studies in Modern Grammar* 66, 167-198.

Rhee, Seongha. 2012a. Context-induced reinterpretation and (inter)subjectification: The case of grammaticalization of sentence-final particles. *Language Sciences* 34(3), 284-300.

Rhee, Seongha. 2012b. Dimensions and force dynamics in perception and grammar: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Studies in Modern Grammar* 70, 181-206

Rhee, Seongha. 2013. "I know I'm shameless to say this": Grammaticalization of the mitigating discourse marker *makilay* in Korean,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7, 480-486.

Rhee, Seongha. 2014a. "I know you are not, but if you were asking me": On emergence of discourse markers of topic presentation from hypothetical questions, *Journal of Pragmatics* 60, 1-16.

Rhee, Seongha. 2014b. Analogy-driven grammaticalization: A case of grammaticalization of sentence-final markers from concomitance-connectives. *Linguistic Research* 31(3), 591-614.

Rhee, Seongha. 2015. On the emergence of Korean markers of agreement. *Journal of Pragmatics* 83, 10-26.

Rhee, Seongha. 2016a. On the emergence of pragmatic markers from pseudo-question constructions in English and Korean: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Language and Linguistics* 70, 423-458.

Rhee, Seongha. 2016b. From quoting to reporting to stance-marking: Rhetorical strategies and intersubjectification of reportative. *Language Sciences* 55, 36-54.

Rhee, Seongha. 2016c. LP and RP in the development of discourse markers from 'what' in Korean. *Journal of Historical Pragmatics* 17(2), 255-281.

Rhee, Seongha. 2017a. What happens when the will withers: The case of hortative in Korean. *Lingua* 189-190, 46-65.

Rhee, Seongha. 2017b. Multifaceted gustation: Systematicity and productivity of taste terms in Korean. *Terminology* 23(1), 38-64.

Rhee, Seongha. 2018a. Grammaticalization in Japanese and Korean. In Heiko Narrog and Bernd Heine (eds.), *Grammaticalization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166-188. Oxford University Press.

Rhee, Seongha. 2018b. Grammaticalization of the plural marker in Korean: From object to text to stance.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25(4), 221-249.

Rhee, Seongha. 2019a. From false promises, fake quotations, and feigned questions into

grammar: Grammaticalization of manipulative discourse strategies. *Japanese/Korean Linguistics* 25, 1-20.

Rhee, Seongha. 2019b. Lexicalization patterns in color naming in Korean. In Ida Raffaelli, Daniela Katunar and Barbara Kerovec (eds.), *Lexicalization patterns in color naming.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109-131. John Benjamins.

Rhee, Seongha. 2019c. Politeness pressure on grammar: The case of first and second person pronouns and address terms in Korean. *Russian Journal of Linguistics* 23(4), 950-974.

Rhee, Seongha. 2020a. The power of the unspoken: Ellipsis and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and beyond. *Studies in Linguistics* 56, 1-36.

Rhee, Seongha. 2020b. Pseudo-hortative and the development of the discourse marker *eti poca* 'well, let's see' in Korean. *Journal of Historical Pragmatics* 21(1), 53-82.

Rhee, Seongha. 2020c. Grammaticalization in Korean. In Walter Bisang and Andrej Malchukov (eds.), *Grammaticalization scenarios: cross-linguistic variation and universal tendencies. Volume 1: Grammaticalization scenarios from Europe and Asia*, 575-608. Mouton De Gruyter.

Rhee, Seongha. 2021a. From truth to reality to effect: The journey of *sasilsang* in Korean. *East Asian Pragmatics* (Special issue) 6(3), 331-353.

Rhee, Seongha. 2021b. Grammaticalisation of discourse markers in East Asian languages: Introduction. *East Asian Pragmatics* (Special issue) 6(3), 271-281.

Rhee, Seongha. 2021c. *Linguistic forms at the border of lexis and grammar: Grammaticalization of adpositions across languages.* Global Contents Publishing.

Rhee, Seongha. 2022a. Comparatives in Korean: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Lingua* 265, 1-23.

Rhee, Seongha. 2022b. Where to go at the end: Polylexicalization and polygrammaticalization of *KAz* 'edge' in Korean. *Russian Journal of Linguistics* 26(3), 571-595.

Rhee, Seongha. 2023a. (Im)politeness in SNS communication in Korea. *Russian Journal of Linguistics* 27(1), 39-66.

Rhee, Seongha. 2023b. Intertwined grammaticalization, degrammaticalization, and

pragmaticalization: The case of *ppwun* 'share' in Korean. *Lingua* 291, 1-29.

Rhee, Seongha. 2023c. Distance contrast of demonstrative-based discourse markers and speaker's stance in Korean. *Journal of Pragmatics* 215, 4-18.

Rhee, Seongha, and Hyun Jung Koo 2014. Grammaticalization of causatives and passives and their recent development into stance markers in Korean. *Poznan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50(3), 309-337.

Rhee, Seongha, and Hyun Jung Koo. 2015. Analogy-driven inter-categorial grammaticalization and (inter)subjectification of *-na* in Korean. *Lingua* 166, 22-42.

Rhee, Seongha, and Hyun Jung Koo. 2017a. Multifaceted gustation: Systematicity and productivity of taste terms in Korean. *Terminology* 23(1), 38-64.

Rhee, Seongha, and Hyun Jung Koo. 2017b. Audience-blind sentence-enders in Korean: A discourse-pragmatic perspective. *Journal of Pragmatics* 120, 101-121.

Rhee, Seongha, and Hyun Jung Koo. 2020. From quotation to surprise: The case in Korean. *Journal of Pragmatics* 155, 83-100.

Rhee, Seongha, and Hyun Jung Koo. 2021. On divergent paths and functions of 'background'-based discourse markers in Korean. In Alexander Haselow and Sylvie Hancil (eds.), *Studies at the Grammar-Discourse Interface,* 77-100. John Benjamins.

Robbeets, Martine, and Hubert Cuyckens (eds.). 2013. *Shared grammaticalization: With special focus on the Transeurasian languages.* John Benjamins.

Rossari, Corinne, Claudia Ricci, and Adriana Spiridon (eds.). 2009. *Grammaticalization and pragmatics: Facts, approaches, theoretical issues.* Emerald.

Saavedra, David Correia. 2021. *Measurements of grammaticalization.* De Gruyter Mouton.

Seoane, Elena and María José López-Couso (eds.). 2008.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Shin, Keun Young. 2010. Auxiliary selection and the role of transitivity in grammaticalisation: The Korean auxiliary verbs *pelita* and *malta. Journal of Historical Pragmatics* 11(1), 96-121.

Smith, Andrew D. M., Graeme Trousdale, and Richard Waltereit (eds.). 2015. *New directions in grammaticalization research.* John Benjamins.

Sohn, Ho-Min. 2018. Evidentiality in Korean. In Alexandra Y. Aikhenvald(Ed.), *The Oxford handbook of evidentiality,* 693-708. Oxford University Press.

Sohn, Sung-Ock S. 2011. Historical development of quotative constructions in Korean. *Japanese/Korean Linguistics* 18, 126-143.

Sohn, Sung-Ock S. 2016. Development of the discourse marker *kulentey* ('but, by the way') in Korean: A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 *Journal of Historical Pragmatics* 17(2), 231-254.

Song, Kyung-An, and Bernd Heine. 2017. Some patterns of grammatical change in personal pronou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1), 139-162.

Stathi, Katerina, Elke Gehweiler, and Ekkehard König(Eds.). 2010. *Grammaticalization: Current views and issues.* John Benjamins.

Traugott, Elizabeth C. 2023. *Discourse structuring markers in English: A historical constructionalist perspective on pragmatics.* John Benjamins.

Traugott, Elizabeth C. and Graeme Trousdale(Eds.). 2010. *Gradience, gradualness and grammaticalization.* John Benjamins.

Tsunoda, Tasaku(ed.). 2013. *Adnominal clauses and the 'mermaid' construction': Grammaticalization of nouns.* NINJAL.

Tsunoda, Tasaku(ed.). 2020. *Mermaid Construction: A compound-predicate construction with biclausal appearance.* De Gruyter.

Urgelles-Coll, Miriam. 201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discourse markers.* Continuum Publishing.

Van linden, An, Jean-Christophe Verstraete, Kristin Davidse, and Hubert Cuyckens (eds.). 2010. *Formal evidence in grammaticalization research.* John Benjamins.

Van Olmen, Daniel, Hubert Cuyckens, and Lobke Ghesquière (eds.). 2017. *Aspects of grammaticalization: (inter)subjectification and directionality.* John Benjamins.

Verhoeven, Elisabeth, Stavros Skopeteas, Yong-Min Shin, Yoko Nishina, and Johannes Helmbrecht (eds.), *Studies on grammaticalization.* De Gruyter Mouton.

Von Waldenfels, Ruprecht. 2012. *The grammaticalization of 'give' + infinitive: A comparative study of Russian, Polish, and Czech.* De Gruyter Mouton.

Yae, Sunhee. 2012. The functional evolution of '-ppwun-' in Korean: A grammaticalization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7(3), 623-638.

Yae, Sunhee. 2022. On the Korean optative constructions *-essumyen* and *-kilul* from grammaticalisation and pragmatics perspectives. *East Asian Pragmatics* 8(1), 1-22.

Yae, Sunhee, Tania Kuteva, and Seongha Rhee. 2023. From fear to grammar: The case of avoidives. *Lingua* 288, 103-526.

Yap, Foong Ha, Karen Grunow-Hårsta, and Janick Wrona (eds.). 2011. *Nominalization in Asian languages: Diachronic and typological perspectives.* John Benjamins.

대한민국학술원
간행물편집위원회

위 원 장 李 敦 熙

위 원 李 長 茂 李 正 馥
李 漢 龜 朴 承 禹
曺 圭 冠 金 道 漢
崔 秉 鉉 李 基 和
林 鍾 律 劉 丁 烈
金 弘 宇 申 喜 燮
柳 莊 熙 金 潤 受

2024년 12월 23일 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ISSN 2234-4683

학문연구의 동향과 쟁점 제14집

독어독문학 · 불어불문학 · 러시아어문학 · 언어학

편집겸 발행자 대 한 민 국 학 술 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전화 02) 3400-5250, FAX 02) 535-8836
홈페이지 : www.nas.go.kr
E-mail : nationalacademy@korea.kr

인쇄처 : 선명인쇄주식회사 전화 02) 2268-4743